

CIS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CONTENT

목 차

I. CIS 시장 개황 / 3

1. 시장 특성
2. 불황기의 시장 환경 변화
3. 진출전략

II. 러시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 10

1. 경제동향
2. 모스크바
3. 블라디보스톡
4. 노보시비르스크
5. 상트페테르부르크

III. 우크라이나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 50

1. 경제동향
2. 10대 수출유망품목
3. 진출방안

IV. 카자흐스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 58

1. 경제동향
2. 3대 수출유망품목
3. 진출방안

V. 아제르바이잔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 75

1. 경제동향
2. 10대 수출유망품목
3. 진출방안

VI. 우즈베키스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 83

1. 경제동향
2. 10대 수출유망품목
3. 진출방안

I. CIS 시장 개황

1 시장특성 및 중요도

□ 연간 4,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수입시장

- 인구 2억8천만명, 연간 4,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수입시장 형성
 - 공산품 제조기반 취향, 특히 소비재의 43% 이상 수입, 소비지향적 성향
 - 자국산업 육성 정책으로 기계설비, 플랜트 등 자본재 수입 가속

□ 한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성장

- '06년 (72억 달러)대비 '12년 (150억 달러 예상) 5년만에 두 배 성장
- '12년 7월 기준, 주요 신흥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CIS 수출은 증가추세
 - 2012년 1-7월간 대 러시아, CIS 수출은 각각 4.9%, 9.5% 증가
 - 對 중국(-2.1%), 브라질(-18.8%), 인도(-3.6%) 수출은 감소

□ 각종 개발 프로젝트 수요 다대

- 낙후지역 개발 및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로 프로젝트 발주 활발
- CIS국별 ITS, 전자정부 구축, 의료 관련 프로젝트 발주 확대

- 러시아 : 국제대형스포츠 이벤트,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등
- 카자흐 : Healthy Kazakhstan Program(26억 달러 규모, 병원건설 등)
- 우즈베크 : 교통, 통신 인프라 개발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선정
 - * '12년 APEC정상회의, '13년 하계U대회, '14년 동계올림픽, '18년 월드컵
 - * 수르길 가스화발전 등 270여개 프로젝트(62억달러), 도로건설(3.6억달러), 고속철도

□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국제시세 변화에 취약
 - 러시아 : 에너지자원이 수출의 71.8%, 재정수입의 49.2% 차지
 - 카자흐 :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총 산업생산의 53% 점유
 - 우즈벡 : 금(5위), 우라늄(10위), 석유, 가스 다량 보유
 - 아제르 : 석유 및 가스 비중이 전체 수출의 95%

□ 자원의존경제 탈피 위한 산업현대화 정책 추진

- 제조업기반 붕괴와 자원의존경제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를 통한 제조업 발전 추구

국가	경제구조	산업발전 계획
러시아	에너지의존 경제 (제조업 붕괴)	경제현대화, 스콜코보 등 신성장정책
카자흐스탄		2003-15 산업개발계획, 산업다변화정책
우즈베키스탄		2011-15 산업발전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철강·농업 편중	개별 산업별 육성정책

□ 초기 시장진입 장벽 높으나 성공적 안착시 고수익 시장

- 고비용, 관료주의, 부패, 언어장벽, 독자 표준적용 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우나, 시장 선점시 고수익 창출 가능

<참고> CIS 주요국 Doing Business 순위

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순위	120위	152위	47위	166위	66위

자료 : Doing Business 2012 (World Bank, 2011.10)

□ 역내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 절대적

- CIS국가 중 러시아 비중 절대적, 역내 경제협력 강화
 - 러시아, CIS 총GDP의 80%, 수출 71%, 수입 65%, 투자유치 74% 차지
 - 관세동맹,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구성추진

2 불황기의 시장환경 변화

□ 세계 경제침체 불구, 올해 4.2% 안정적 경제성장

- IMF는 2012년 CIS지역 성장률 4.2%로 전망, 세계평균 3.5%를 상회
- '11년 CIS 성장률은 4.7%로 세계평균인 3.9%를 상회하는 성장세 기록

□ 국제유가하락 등으로 경제위축 요인 상존

- CIS의 경제동력인 러시아의 경우 수출의 71.8%, GDP의 24%, 재정수입의 49.2%를 석유,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
- 국제원유가가 10달러 하락시, 러시아 GDP는 약 1.4%하락(S&P; '12.5.)
- 한편, 유가하락은 자국화 평가절하로 이어져 바이어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해외 수입도 급격히 하락하는 시장 특성 보유

□ 일부품목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급격한 변동에 취약

- 수출품목이 자동차, 차량부품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승용차, 자동차부품, 화물차, 타이어가 전체 CIS수출의 44% 차지
- 주재국 경제위기시 타국 대비 수출폭이 급감하는 경향 있음

□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강화 동향

- 러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관세장벽 완화로 자국업체 보호위한 정책 및 법안상정 확대 중

- 신차, 중고차 수입시 환경부담금(Utilization Fee) 법안상정('12.6.19)
 - 차량 수입가격의 5-10%선의 비관세 장벽 형성 예상
- 농업 보호 위해 10개 법안 상정('12.6.18)
 - 농가지원 예산 편성, 농업생산 수익 세금 면제 등
- 2030년까지 석탄(\$920억), 조선(\$100억), 식품(\$175억)분야 산업육성 자금 투자 계획 발표('12.6.7)

□ (기획요인) CIS 각국 정부의 주요 산업 현대화 정책 추진

- IT, 의료 등 구소련이후 낙후 시설 교체 및 신규 구매 수요증가
 - (러시아) 5대산업(IT, 의료, 에너지, 우주항공, 원자력) 현대화 추진
 - (카자흐) 2003~2015 산업개발계획,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
 - (우즈벡) 2011~2015 산업발전 프로그램

□ (기획요인) 의료, IT융합 관련 대형 프로젝트 발주 증폭예상

- 러 건설시장 2020년까지 3배 확대 예정('11년기준)
- 러 정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추진
 - '12년 극동지역 인프라 개발 예산배정(\$150억달러)
 - 2020 시베리아 개발 전략, 극동 장관직 신설 등(푸틴대통령 공약)
- CIS 국별 ITS, 전자정부 구축, 의료 관련 프로젝트 발주 확대
 - 카자흐스탄(의료 인프라 현대화 사업, 알마티주 태양광 발전소 등)
 - 우크라이나(키예프, 하리코프시 ITS 프로젝트, LNG터미널 건설)
 - 우즈베키스탄(철도 전철화, 태양광 발전소 걸립 등)
 - 아제르바이잔(바쿠시 가로등 원격통제 시스템 등)

□ (기획요인) 러시아 WTO가입과 3국 관세동맹 본격

- 러시아, 오는 8월 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 발효
 - WTO 가입 승인('11.12), 의회 비준('12.7), 발효('12.8.)
- 수입관세 인하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예상
 - 수입 관세 :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 하향 조정
 - WTO가입에 따른 법규, 제도변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예상

3

진출전략

□ 러시아 대기업으로의 Supply chain 구축을 통한 수출 확대

- 사업명 : 러시아 Avtovaz사 Autoparts 사업
- 추진배경
 - Avtovaz사가 추진중인 경영개선 전환 기회 활용
 - 한국자동차 인지도 확산에 따른 대리 부품수출 증가 기회 활용
 - * 르노-닛산의 Avtovaz 경영권 인수(50%+1주) 예정, 품질 제고를 위한 부품 아웃소싱 확대
 - * '10년 현대차의 현지 생산공장 성공적 진출과 완성차 및 AS부품 판매 호조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참가 규모
 - 러시아측 : Avtovaz사 경영층 및 품목별 구매담당자
 - 한국업체 : Avtovaz사 구매희망품목 생산 국내유망부품업체 20개사
- 추진 일정
 - 3-4월 : 모스크바무역관, Avtovaz사에 사업제안 및 일정조정
 - 6월 : Avtovaz사 구매부사장 업무협의 및 사업개최 최종 확정
 - 7~8월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9-10월 : 상담주선 및 전시품 운송
 - 11월초(잠정) : 사업 개최
- 기대효과
 - 자동차 부품 수출의 다변화 추구
 - 부품 공급체계(Supply chain)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확대 마련
- 주요내용
 - Avtovaz구매정책 발표 및 한국기업 제품 프리젠테이션
 - 한국기업 제품 미니 전시회 및 1: 1 파트너링

<참고 : Avtovaz사 구매희망 품목>

1	Plastic fuel tanks (플라스틱 연료 탱크)
2	Rubber products (고무 부품)
3	Chrome parts (크롬 부품)
4	Lighting (조명 부품)
5	Under steering switches (방향지시등/와이퍼 스위치 시스템)
6	Ignition lock key-plate (시동 키 장치)
7	Evaporative emission control system: canisters, canister purge solenoid, separators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8	Bearings: steering arm shaft hub, front shaft bearing of oil pump drive, upper connecting rod bush (베어링류)

주 : KOTRA 모스크바무역관, Avtovaz사 사전접촉을 통한 구매희망품목 접수

- 본사 관련팀 : FTA 사업팀

□ 러시아 프로젝트 시장 진출 강화

- 사업명 : CIS ITS 로드쇼
- 추진배경 : ITS 기술 도입 초기 시장 공략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 * 2000년대 초부터 부분적으로 소개, 현지 대도시의 교통난 증가로 본격적인 기술 도입중
- 개최일/장소 : 2012년 10.14-19 / 모스크바(10.15), 키예프(10.18)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담회 이후 비엔나 ITS 세계대회 전시회(10.22) 참관 예정
- 참가 규모
 - 러시아, 우크라이나측 : ITS 사업 발주처 및 관련 협회 등
 - 한국측 : 국토해양부, 한국ITS협회 및 국내 ITS관련 유망업체 10개사
- 기대효과 : ITS 구축 초기단계에서의 프로젝트 수주, 시장선점
- 행사내용
 - 한-러, 한-우크라이나 ITS 관련기관간 공동협력 세미나
 - 유력 발주처와 국내업체간 개별 상담회
 - ITS 관련 주요 기관 또는 관련 기업 현지 시찰

- 추진내역
 - 8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참가기업 모집
 - 9월 : 참가기업 품목 시장성 평가
 - 10월 14일: 사업 개최

- 본사 관련팀 : IT사업단

II. 러시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1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주요기관의 러시아 2012-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5~4.5%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높은 에너지자원(석유, 가스) 의존 경제구조와 최근의 국제유가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다소 낙관적인 성장 전망은 유가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분야의 꾸준한 소비 증가에 근거함
- 그러나,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져 유가가 급락할 경우 소비 급감 및 환율불안 등을 야기해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러시아 경제성장률(GDP) 전망(단위: %)>

'09	'10	'11	'12년					'13년				
			러정부 (6월)	EIU (5월)	IMF (4.17)	WB (3.27)	OECD (5.22)	러정부	EIU (5월)	IMF (7.17)	WB (3.27)	OECD (5.22)
-7.8	4.3	4.3	3.7~4	3.5	4.0	3.5	4.5	3.8	3.8	3.9	3.9	4.1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환율) 현재 유가하락 기조속에 러시아 루블화 환율도 약세 추세임
- 국제유가등 외부 경제환경 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추세로 인해 2012년 7월 현재 \$=32루블대 형성중
- 러시아 루블화는 지난 3월 대비 약 14% 평가 절하됨

*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 (3월) U\$122.6 → (6월) U\$94.2 (약 23% 하락)

* 달러당 루블 환율 : (3월) 1\$=29.37루블 → (6월) 1\$=32.79 (약 14% 평가절하)

- 유로존 불확실성이 제거될때까지 루블화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높은 외환보유고와 러 정부의 통화정책의 유연성 등으로 추가적인 환율 하락없이 **당분간 \$=31-32루블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물가) 2011년 물가상승률은 6.1%를 기록해 최근 10년 최저수준을 기록
 - 2007년: 11.9%, 2008년: 13.3%, 2009~2010년 : 8.8%, 2011년 : 6.1%
- 이러한 안정적인 물가수준의 유지의 원인은 물가억제를 위한 보수적 통화정책과 풍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안정에 따른 것이며 2012년 물가상승률 역시 5-6.5% 대를 형성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
 - * 러 정부전망 : 2012년 5-6%, 2013년 5.5% / IMF : 2012년 5.0%, 2013년 6.5%
- 최근 세계적인 농산물의 흉년과 지난 7월 대대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주재국 수출입) 러시아의 총 교역액은 2011년 8,780억달러로 러시아 수출의 2/3을 차지하는 원유와 가스 가격의 강세와 수출증가로 2011년 무역수지는 1,720억달러 달성
- 한편, 자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소비재 및 산업재를 수입하고 있어 연 3,500억 달러(2012년 기준)의 큰 수입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러시아의 대외 교역동향(단위: 억달러)>

년 도	2009	2010	2011	2012(예상)
교역 총액	4,952	6,468	8,447	8,780
수출(US억\$)	3,034	3,980	5,214	5,250
수입(US억\$)	1,918	2,488	3,233	3,530
무역수지(US억\$)	1,116	1,492	1,981	1,720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경제개발부

- (대러 교역)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은 2011년 사상 최초로 교역규모 200억달러, 대러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6월 현재 대러 수출은 전년대비 55.1억달러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함
- 동기간중 수입은 52.5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6억달러 흑자 기록
- 무역수지 흑자는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이 확대된 반면,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감소에 기인
 - 석유 : 러시아산 원유의 프리미엄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 감소
 - 천연가스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의 일본공급 확대
- 2012년 대러 수출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러 경제의 급락 등의 가능성이 있어 예단하기 힘들으나, 자동차(승용차, 화물차) 및 부품, 타이어 등의 수출 호조세로 인해 전년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동향(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1.1~6
교역 총액	99.8	176.6	211.6	107.7
대러수출	41.9	77.6	103.1	55.1
대러수입	57.9	99.0	108.5	52.5
무역수지	-15.9	-21.4	-5.5	2.6

자료원 : KITA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세계경기 침체에도 달러구, 러시아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 유지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민간분야의 높은 소비와 건설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2012년 상반기 GDP 성장률을 4.4% 기록했다고 발표
- 그러나, 각 주요지표가 1분기에 비해 감소 추세이고 특히 6월 산업생산성이 전년동월 대비 1.9%(전월대비 -0.2% 감소) 증가하고 투자 역시 4.7%(전월대비 0.2%) 기록하는 등 차츰 생산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6월 소매 거래량은 계절 조정후에도 6.9%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 수요부분은 양호한 편임

<러시아 실물분야 주요 지표 동향(단위: %)>

구 분	09년	10년	11년	2012년		
				1분기	6월	1-6월
실질 GDP 성장률	-7.8	4.3	4.3	4.9	3.8	4.4
산업생산 성장률	-9.3	8.2	4.7	4.0	1.9	3.1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16.2	6.0	6.2	11.2	4.7	10.2
소매거래량 증가율	-4.9	6.3	7.2	7.5	6.9	7.1

자료원 : 러시아경제개발부

○ 금융부문

- 러시아 주가지수(RTS: Russian Trade System)의 2012년 7월 평균 주가지수는 약 1,380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높았던 2012년 2월의 1,700 포인트에 비해 하락한 상태인데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 가스기업들의 주가하락과 경제위기에 따른 외국 자본의 철수에 기인함
-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2012년 5월 기준, 5,244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 중

2. 모스크바

가. 10대 수출유망품목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HS 4~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1분기)		2010		2011		2012(1분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부품 (8708)	5313.6	96%	8303.3	56%	2340.9	15%	723.8	107%	1245.4	72%	400.2	37%
2	의료기기 (901890)	811.4	39%	1068	32%	235.3	54%	9.3	44%	9.3	0%	3.5	66%
3	스마트카드 (852352) ^{주2)}	32.5	27%	28.4	-12%	8.8	-37%	0.01	-15%	0.2	1282%	0.3	-72%
4	플라스틱금형 (848071)	143.0	39%	189.9	33%	54.5	-7%	27.1	32%	38.6	42%	14.4	-24%
5	특장차 (870590)	100.4	-34%	230.8	130%	57.6	171%	0.7	-58%	3.4	352%	1.3	760%
6	유아동복 (620930)	14.5	69%	21.0	44%	3.4	2%	0	0%	0	0%	0	0%
7	용접기 (851531)	197.3	-32%	131.9	-33%	35.9	60%	2.0	406%	5.4	163%	0.7	555%
8	냉장 또는 냉동기구(841869)	169.3	54%	241.7	43%	35.8	-23%	3.0	33%	4.3	41%	0.5	36%
9	밸브 (848180)	1393.8	65%	1541.6	10%	351.4	2%	5.8	43%	10.5	79%	1.5	-50%
10	편직물 (600410)	79.6	100%	58.7	-26%	7.4	-49%	13.3	202%	11.0	-17%	1.9	-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KITA)

주) 1. 자동차부품은 HS CODE 4자리 8708로 분류

2. 스마트카드(852352)의 2012.2분기까지의 금액임(다른 품목은 2012.1분기까지의 금액임)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1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
---	-----	-------------------

○ 시장동향

- '11년 기준, 러 자동차부품시장에서 AS시장은 54.7%(약 200.5억 달러), OEM시장은 45.3%(170억 달러)로 평가되는데, 이 중 AS시장은 다시 외국산 자동차용 부품 130.47억 달러, 러시아산 자동차용 부품 70.05억 달러로 나뉨
- 한국산 완성차 판매 호조로 AS시장 및 기술, 부품혁신을 추진중인 러시아 완성차 공급 OEM 시장 모두 전망 좋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각국으로부터 고급 브랜드 및 저가 자동차부품 등이 모두 수입이 되어 경쟁이 치열함
- 단, AS시장의 경우 기 진출한 외국, 한국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우나 최근 러시아 완성차업체들의 해외 소싱 확대 움직임으로 OEM 시장은 진출 전망이 밝음

<주요국별 자동차부품(HS Code 8708)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5313.6	8303.3	2340.9	100	100	100	56.2	14.9
1	독일	864.3	1441.2	386.5	16.2	17.3	16.5	66.7	14.7
2	한국	723.8	1245.4	400.2	13.6	15	17.1	72.0	36.5
3	일본	742.3	1078.1	289.7	13.9	12.9	12.3	45.2	16.8
4	중국	430.2	876.1	235.1	8.1	10.5	10.0	103.6	34.4
5	EU	373.2	717.0	177.0	7.0	8.6	7.5	92.1	-23.0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신차 구매량 증가, 노후차량 증가, 한국산 부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자동차 부품시장 유망성 높음
- 러시아 완성차업체의 해외소싱 확대 움직임으로 OEM 시장 진출 유망성 높음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1,2차 업체의 대러 진출 필요성 고조)

2	품목명	의료기기(HS : 9018.90)
---	-----	---------------------

○ 시장동향

-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 20대 시장 중 하나로, 2011년 전체 수입 시장규모는 1,068 백만달러로 전년대비 31% 성장
- 러시아정부의 의료현대화 정책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교체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현대의료기기의 자체 생산기반이 부족하여 해외업체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의료기기시장의 73%는 수입에 의해 공급되며 현재 독일, 미국, 중국, 일본이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 국가임
-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품질을 앞세운 유럽업체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가 시장 선도중
- 한국은 2011년 기준 시장 점유율 12위(수출액 9백만달러)로 2012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66% 증가한 3백만달러 규모로 10위를 차지

<의료기기(9018.90) 주요수출국별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811.4	1068.0	235.3	100	100	100	31.6	53.7
1	독일	278.9	353.6	69.9	34.3	33.1	29.7	26.8	65.6
2	미국	133.4	194.4	40.6	16.4	18.2	17.2	45.7	46.7
3	중국	120.2	129.8	38.0	14.8	12.1	16.1	7.9	52.8
4	일본	60.8	89.0	15.4	9	8.3	6.5	46.4	90.7
5	이태리	30.5	48.8	10.8	2.9	4.5	4.6	59.8	30.8
12	한국	9.3	9.3	3.5	1.15	0.87	1.5	0	66.4

출처 : WTA(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러시아 정부의 의료현대화정책으로 의료기기교체에 따른 수요 증대
-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상승 및 수출액 상승중

3	품목명	스마트 카드(HS : 8523.52)
---	-----	----------------------

○ 시장동향

- 러시아의 ITS(스마트카드 포함) 도입은 시장 초기단계임
 - 러시아 위성항법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¹⁾ 시스템 적용을 통한 통합 ITS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법률 제정 및 기술표준 확립을 추진
- ITS 추진 주체는 러시아교통부, 내부부, 지방주정부, 몇몇 대기업(러시아철도청)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ITS 관련 수출은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단발성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뚜렷한 수출 선도 국가는 없음
- 일부 유럽 기업들이 최근 수주 성과를 거양중에 있음
 - 오스트리아 기업의 러시아 자회사인 Kapsch TrafficCom Russia사, 2011년 카잔 교차로 통제 솔루션 낙찰
 - 2011년 카잔 도시교통관리 조정 시스템을 이태리 OMNIA사로부터 도입결정

<스마트카드(8523.52.90) 주요수출국별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32.5	28.4	8.8	100	100	100	-12.6	-37.8
1	폴란드	9.8	7.1	0.1	30.1	25.1	1.2	-27.0	-97.8
2	중국	10.7	6.3	2.7	32.9	22.4	30.9	-40.5	-14.2
3	대만	1.9	2.5	0.6	6.1	8.9	7.3	27.0	-48.9
4	오스트리아	1.2	2.3	0.8	3.7	8.3	9.1	94.2	322.0
5	프랑스	0.6	2.3	1.6	2.1	8.2	18.2	234.8	4.0
12	한국	0.01	0.2	0.03	0.06	0.87	0.3	1282.7	-72.9

출처 : WTA(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스마트카드를 필두로 ITS 관련 수요 향후 증가 예상
- 우리나라의 기술적 우월성 및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실시시 수주가능성 큼 (단, 사안에 따라 일정부분의 투자 필요)

1) 1976년 구 소련이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GPS)에 대항을 위해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러시아 정부는 글로나스 상용화에 2010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1년에도 16억 달러를 추가 투자함.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4	품목명	플라스틱 금형(HS : 848071)
---	-----	-----------------------

○ 시장동향

- 플라스틱 완제품 시장 확대로 플라스틱 금형 수요 증가중
- 러시아내 플라스틱 제품생산도 증가 중으로 2011년 기준 생산량은 전년대비 평균 46% 증가
- 러시아 플라스틱 금형 시장에서 약 27%만이 현지 자체생산이며 나머지 73%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11년 플라스틱 금형 총 수입액은 189백만달러로 이중 한국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 경쟁 및 수입동향

- 한국, 대만은 중저가 제품을 중국은 저가, 유럽국가들은 고가 제품을 공급중임
- 한국산 제품은 중저가로 분류되나, 그 외 품질(내구성), 납품기한 준수 및 AS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좋음
- 중국과 대만 기업들은 러시아에 많은 지사들을 두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A/S면에서도 시장 평가가 좋음

<주요국별 플라스틱 금형(8480.71)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143.0	189.9	54.5	100	100	100	32.7	-7.1
1	대한민국	27.1	38.6	14.4	18.9	20.3	26.5	42.3	-24
2	중국	17.4	31.4	10.6	12.1	16.5	19.5	80.1	69.5
3	이태리	14.9	30.6	5.8	10.4	16.1	10.7	105.0	43.2
4	독일	18.9	15.2	5.9	13.2	8.0	10.9	-19.5	8.6
5	포르투갈	13.2	12.5	4.6	9.2	6.6	8.6	-5.0	-23.8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플라스틱 수요 및 제품 생산 확대로 시장 유망성 좋음
- 저가를 내세운 중국제품의 시장 확대추세이나, 마케팅, 홍보 활동 강화 시 기존의 시장 지배력 확대 가능

5	품목명	특장차(HS : 870590)
---	-----	-------------------

○ 시장동향

- 최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개최 등 추가 건설 소요로 인한 건설경기 붐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전체 특장차 수입시장은 2011년 230 백만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약 130% 성장하였음
- 러시아 특장차시장에서 러시아 자국산과 외국 수입산 특장차들은 기본적인 기술 요소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격, 애프터서비스, 유지비, 그리고 내구성 등에서 차이가 드러남
- 수입 특장차의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지보수 및 A/S 서비스에 달려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수입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한국은 전년대비 352% 성장한 3백만달러 규모로 시장점유율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1분기는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760% 성장
- 이는 겨울이 비수기임을 감안할 때 기대이상의 성과에 해당

<주요국별 특장차(8705.90) 대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100.4	230.8	57.6	100	100	100	129.9	170.9
1	독일	33.8	65.2	10.9	33.7	28.2	19.0	92.9	-8.3
2	영국	0.2	36.1	7.5	0.27	15.6	13.0	13339.5	0
3	미국	11.1	33.4	3.2	11.1	14.5	5.7	199.6	413.6
4	핀란드	3.6	15.5	6.4	3.6	6.7	11.2	320.5	635.6
5	덴마크	5.9	13.4	6.9	5.9	5.8	12.0	126.9	985.9
11	한국	0.7	3.4	1.3	0.7	1.4	2.3	352.0	760.2

출처 : WTA(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최근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유치로 인한 건설 경기 붐으로 수요가 급증
- 한국산 제품 수출확대중. A/S 편의 확대시 추가적으로 시장확대 가능

6	품목명	유아동복(HS : 620930)
---	-----	--------------------

○ 시장동향

- 러시아 유아용품 수입시장은 21백만 달러 규모로 3년 연속(2009-2011) 증가 추세임
- 이는 2008년 이후 베이비붐으로 유아용품의 수요가 확대된 것에 기인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저가브랜드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으나, 경기 회복과 가처분소득상승에 힘입어 중·고가브랜드를 선호하는 수요계층도 점차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1년 기준 73%의 수입점유율을 기록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저가브랜드 제품에 기반하고 있으며, 중·고가브랜드 유아동복의 경우 주로 유럽에서 수입
- 한국의 유아동복 대러 수출은 매우 미약함

<주요국별 유아동복(6209.3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14.5	21.0	3.4	100	100	100	44.5	2.3
1	중국	11.0	15.4	2.5	75.9	73.4	73.1	39.8	-0.3
2	핀란드	1.2	2.3	0.2	8.6	11.0	6.1	83.8	27.6
3	폴란드	0.7	0.7	0.1	5.8	3.7	5.0	11.3	39.4
4	대만	0.5	0.7	0.02	3.5	3.5	0.6	45.4	-75.8
5	베트남	0.1	0.3	0.04	1.2	1.7	1.3	92.3	-14.0
41	한국	0	0.0001	0	0	0.03	0	0	0

출처 : WTA(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최근 베이비붐으로 인한 유아동복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제품가격별 구매계층이 뚜렷하므로, 뚜렷한 타겟 계층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 시 성공적인 진출을 마련할 수 있음
- 러시아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중저가 제품 공급시 수출가능성 높음

7	품목명	용접기(HS : 851531)
---	-----	-------------------

○ 시장동향

- 전체 용접기 수입시장은 197.3백만달러 규모로 2년 연속(2010-2011) 하락 추세이긴 하나 2012년 1분기의 총수입액이 전년동기 60% 증가 추세임
- 이는 러시아 월드컵(2018) 등 국제대형이벤트 개최와 각종 프로젝트 발주등 건설분야에서의 수요 확대에 기인함
- 러시아 용접기 시장은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제품에 비해 확연히 고·저가 시장으로 양분화된 특성이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대러 용접기 수출 상위국의 대부분이 독일, 이태리 등 유럽국가가 차지하는 등 유럽 업체가 시장 주도
- 러시아 업체 생산 용접기 제품의 경우가 저가이기 하나, 중국산의 시장 확대와 낮은 생산성 등으로 시장 점유율 감소 추세임
- 한편, 한국산 제품도 2009-2011년 연속 수출액이 급상승중으로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중임

<주요국별 전기용접기(8515.31) 주요수출국별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197.326	131.974	35.9	100.00	100.00	100.00	-33.12	60.17
1	네덜란드	4.892	27.738	1.8	2.48	21.02	5.24	467.00	-57.8
2	미국	48.809	23.860	3.3	24.74	18.08	9.46	-51.12	-47.7
3	이태리	8.198	17.946	1.6	4.16	13.60	4.56	118.90	98.0
4	독일	32.295	13.482	6.1	16.37	10.22	17.12	-58.25	144.2
5	중국	11.858	9.714	4.0	6.01	7.36	11.1	-18.08	110.7
-	대한민국	2.061	5.419	0.7	1.04	4.11	2.2	162.92	555.1

출처 : WTA(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국제 스포츠이벤트 개최 등으로 산업용 용접기 시장 수요 증가중
- 한국제품 수출 확대중이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시 시장 확대 가능

8	품목명	냉장 또는 냉동기구(HS : 841869)
---	-----	-------------------------

○ 시장동향

- 러시아 식품산업의 성장과 더달리어 러시아 전역의 현대식 유통망 확대에 따라 냉동기구의 수요는 증가 추세이며 기존의 산업 냉동기구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 필요성이 높음
- 2011년 전체 냉동기구 수입시장 규모는 241 백만달러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음
- 국산 냉동기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냉동기구의 품질과 서비스, 가격부문에서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어려운 실정

○ 경쟁 및 수입동향

- 전체 수입시장에서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독일이 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4국가의 점유율은 전체의 70%에 해당
- 한국은 2011년 기준 전년대비 40% 성장한 4백만달러 규모로 시장 내 10위를 차지하고 있음

[냉동기구 주요수출국별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169.3	241.7	35.8	100	100	100	42.7	-22.6
1	이태리	40.6	66.4	9.6	24	27.4	27.0	63.4	-2.9
2	중국	26.6	37.5	4.6	15.7	15.5	13.0	41.2	-13.9
3	프랑스	19.9	32.4	4.3	11.8	13.4	12.2	62.3	-26.0
4	독일	18.8	29.4	3.0	11.1	12.1	8.4	56.4	-69.5
5	우크라이나	14.6	10.1	2.9	8.6	4.2	8.1	-30.4	-17.7
12	한국	3.0	4.3	0.5	1.8	1.8	1.6	40.8	-35.7

출처 : WTA(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현대식 유통망의 확장으로 인해 냉동기구의 수요 증대
- 에너지 효율 관련 및 저온저장고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제품으로 유럽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존의 시장지배력 확대가능

9	품목명	밸브(HS : 848180)
---	-----	-----------------

○ 시장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2008-2009) 이후 회복기인 2010년부터 산업용, 가정용 밸브 수요 확대중이며 러시아의 전체 수입액은 13.8억달러로 추산('11년)
- 밸브 대외 수입량은 2010년은 전년대비 75.3%, 2011년은 5.5% 증가
- 200여개의 러시아 자국 밸브 생산업체중 약 10개사 정도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국, 독일, 이태리, 미국 등이 시장을 주도중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체시장에서 0.7%를 차지하는 등 시장비중이 낮음

<주요국별 밸브(HS Code 8481.8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1,393.8	1,541.6	351.4	100	100	100	10.6	1.8
1	중국	300.1	376.3	78.0	21.5	24.4	22.1	25.3	-3.4
2	독일	306.5	187.7	70.1	21.9	12.1	19.9	-38.7	86.2
3	이태리	205.4	161.6	55.8	14.7	10.4	15.9	-21.3	14.1
4	미국	72.0	93.5	14.4	5.1	6.0	4.1	29.8	3.7
5	체코	60.3	74.2	19.6	4.3	4.8	5.6	23.0	53.5
27	한국	5.8	10.5	1.5	0.4	0.6	0.4	42.6	-49.9

출처: World Trade Atlas

- 2011년 러시아가 수입 밸브류 중, 중앙난방용 온도 컨트롤밸브(HS Code 84818031), 글로브밸브(84818071), 버터플라이밸브(84818085), 다이어램밸브(84818087) 등의 수입량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함

○ 선정사유

- 러시아 산업발달과 인프라 개발 수요가 증가추세로 밸브 수요 점증
- 2012.1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바이어 평가 좋고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등을 강화할 경우 수출 증가가 가능함

10	품목명	편직물(HS : 600410)
----	-----	------------------

○ 시장동향

- 중국산 편직물 완제품의 수입증가로 편직물 수입이 감소추세이나 전체 수요의 80%를 해외에서 수입중임
- 러시아의 건실한 러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편직 의류(knitwear)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에 따라 여성용 외투류, T셔츠, 속옷, 운동복 생산이 향후 확대될 것 예상
- 러시아 편직물 의류 생산업체는 대략 20개 업체로 파악되며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관건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국, 터키, 한국 등이 대러 편직물 시장을 주도중
- 중국과 터키가 대러 수출의 약 70% 차지하며 한국은 약 19% 차지
- 유럽국가는 고가 상품, 아시아국가 저가 제품 위주로 수출이며 유럽산 제품은 1.5-2.5배 이상의 고가제품을 공급, 중국과 한국산의 경우 수입 단가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러 정부 자료에 따르면 편직의류중 여성용 외투류, T셔츠, 속옷, 운동복 생산이 향후 확대될 것 예상됨

<주요국별 편직물(6004.1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전체	79.6	58.7	7.4	100	100	100	-26.2	-49.2
1	중국	26.9	21.8	2.0	33.7	37.1	28.8	-18.9	-64.9
2	터키	29.0	16.7	2.1	36.4	28.5	27.2	-42.1	-55.6
3	한국	13.3	11.0	1.9	16.7	18.8	26.5	-16.8	-9.5
4	우즈베크	6.3	5.8	0.4	7.9	9.9	6.5	-7.8	-54.6
5	시리아	0.2	0.7	0.0001	0.3	1.2	0.02	200.8	0

출처 : WTA(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한국산 제품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등 기 진출 이점을 활용하고 유럽, 중국산과 차별화된 제품 공급할 경우 시장 확대 가능

나.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신규바이어 발굴, 제품홍보 등을 위한 방법으로 각 품목별로 2013년 상반기 중 다수의 건축 관련 전시회가 개최 예정으로 해당 전시회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 참가 필요
 - 용접기 : Metalloobrabotka (2013.5월), CTT(2013.6월)
 - 유아동복 : Consumexpo(2013.1월), CJF(2013.2월)
 - 특장차 : Transcon/Intertunnel/Eurotraffic (2013.3월)
 - 의료기기 : Dental Salon (2013.4월 등)
 - 기타 품목별 전시회 및 상세정보는 www.gep.or.kr 등을 참조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대형 공급상(딜러)을 통한 수출방식이 효율적
 - 통상 공급상(딜러)을 통한 제품 유통이 대부분이고 초기 시장 진출 비용이 높은 현지 시장특성과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현재 러시아 직 수요자(생산업체)의 경우 영어 및 무역에 대한 지식 부족, 재고 관리 등의 문제로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중
- 공격적인 마케팅, 시장 진출 필요
 - 러시아는 언어적문제, 정보부재, 높은 비용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기 러시아 시장 진출의 장애임
 -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비교적 타 시장 대비 경쟁이 덜하고 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1-2회 시장 진출 노력이후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한 러시아 출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 진입 노력이 필요하며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대체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평가는 좋은 편이나 산업재인 경우 대체적으로 가격을 우선시하는 편으로 저가 제품을 공급중인 중국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 요소 개발이 중요함
- 러시아 바이어는 AS, 홍보강화, 빠른 납품기일 준수 등을 역시 요구하므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되 해당 요소의 차별화가 필요
- 소비재의 경우 대형유통 체인점을 공략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나, 대형유통 체인점 경우 높은 입점비 등을 요구하고 각국 기업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시회에 지속 참가하여 현지시장에서 제품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

□ 진출시 유의사항

- 러시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주력하고 WTO 가입 이후 관세 및 관련 제도 변경 추이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자체 표준 인증인 GOS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지 않더라도 신뢰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블라디보스톡

가. 10대 수출유망품목

□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수입시장동향											
		주채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배터리 (850710)	308.6	102.6	378.0	22.4	111.8	-18.7	30.6	78.5	48.3	57.7	17.0	-10.4
2	폴리카아보네이트 (390740)	97.9	53.5	123.0	25.6	65.6	-8.7	5.1	131.6	7.0	37.3	9.0	201.0
3	타이어 (401110)	593.4	28.2	1,091	84.0	745.8	34.9	76.0	58.5	114.8	51.0	88.4	70.8
4	폴리에틸렌 (390120)	427.6	70.6	571.2	33.5	322.5	6.39	61.5	15.1	86.7	40.8	57.1	26.4
5	아연도금강판 (721049)	251.5	6.8	408.2	62.2	553.2	52.4	6.4	117.9	16.0	150.5	6.7	19.8
6	노트북 (8471130)	3081	98.5	3,094	0.45	1,561	32.0	0.3	-36.8	6.6	1,866	0.28	-30.0
7	자동차 부품 (870899)	385.9	96.9	630.5	63.3	480.5	54.0	49.9	99.1	78.4	57.2	55.6	39.34
8	LED TV (852872)	578.2	-5.1	477.4	-17.44	188.6	-19.64	28.2	52.6	15.8	-43.8	14.8	545.0
9	굴삭기 (842952)	474.9	102.3	1,190	150.6	697.3	25.3	118.5	363.5	3,705	212.4	194.7	8.3
10	승용차 (870322)	1188	13.4	1,691	42.3	637.5	-27.1	240.3	-31.9	35.8	-85.0	21.9	41.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순위는 무역관 현지 시장성에 따라 자체 평가후 10대 품목 선정

□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 배터리(HS : 850710)
---	-----	----------------------

○ 시장동향

- 2011년 러시아의 자동차 배터리 수입시장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2% 성장한 약 372백만 달러 규모임
- 2011년 러시아 자동차 배터리 시장(물량기준)은 15만 units 규모이며, 이중 약 80%가량이 수입산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는 Sombor, Black Horse(세르비아), Westa, (우크라이나), Varta(체코) 등임
- 한국 브랜드로는 Medalist, Delkor, Rocket, Atals 등이 현지, 특히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있으며, 최근 극동을 벗어나 시베리아지역 까지도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 러시아 브랜드로는 Titan, Aktex, Tyumen 등이 있으며, 러시아 배터리 시장의 약 20%를 점유

[주요국별 자동차배터리(HS Code 85071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12.1Q	2009	2010	2011	
0	전체	150.1	304.0	372.7	94.8	100	100	100	22.6
1	우크라이나	42.2	97.5	120.5	22.4	28.1	32.1	32.3	23.6
2	한국	16.8	30.6	48.2	10.3	11.2	10.1	12.9	57.5
3	체코	16.2	29.3	43.9	14.1	10.78	9.6	11.8	50.1
4	세르비아	4.87	31.3	34.7	8.1	3.2	10.3	9.3	10.8
5	스페인	9.2	18.3	27.9	7.8	6.1	6.0	7.5	52.55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2010년 수입이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2011년에도 전년대비 20%이상 수입증가세를 시현
-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러시아 자동차 배터리시장(수입시장)은 연간 최소 5-1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2	품목명	폴리카보네이트(HS : 390740)
---	-----	----------------------

○ 시장동향

- 2011년 러시아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요는 약 30% 이상 증가했으며, 규모로는 약 92,000톤으로 추정되나 만 생산 및 수입물량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러시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러시아산 폴리카보네이트의 가격은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아시아 산에 비해 30%가량 높은 수준임
- 인기 있는 브랜드로는 Bayer(독일), Thai Polycarbonate(태국), Dow(미국), Mitsubishi(Japan), Teijin(일본), Ge Plastics(미국) 등이 있음

[주요국별 폴리카보네이트(HS Code 39074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63.8	97.9	123.1	100	100	100	25.6
1	스페인	5.7	26.1	47.4	8.9	26.6	38.6	81.8
2	벨기에	16.7	18.6	19.2	26.3	19.1	15.7	3.3
3	네덜란드	5.0	12.5	18.4	7.9	12.7	14.9	47.3
4	독일	8.7	11.5	14.1	13.6	11.8	11.4	21.8
5	태국	6.9	6.3	7.6	10.8	6.4	6.2	20.5
6	한국	2.2	5.1	7.0	3.4	5.2	5.7	37.4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러시아 폴리카보네이트 시장은 연간 최소 5%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또한 한국산은 가격은 유럽산 등에 비해 낮은 반면, 품질경쟁력은 유럽산에 뒤처지지 않아 성장 전망이 풍부함.

3	품목명	타이어(HS : 401110)
---	-----	------------------

○ 시장동향

- 2011년 러시아의 타이어 수입시장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약 84% 성장한 1,091백만 달러규모임
- 타이어는 자동차 관련 제품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품목 중 하나이며, 수입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입타이어 시장도 성장가능성이 높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타이어 수입시장은 성장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외국업체들은 종전의 수출위주에서 러시아 내 현지진출(공장건설 등)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런 추세로 인해 수입시장만 볼 경우, 중국, 한국 등 아시아국가제품의 경우 가격대비 품질만족도가 높아 수입전망이 밝음

[주요국별 타이어(HS Code 40111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12.1Q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462.9	593.5	1,091.6	745.84	100	100	100	84
1	일본	204.9	211.1	337.4	219.2	44.3	35.6	30.9	59.8
2	한국	47.9	76.0	114.8	88.5	10.4	12.8	10.5	51.0
3	독일	53.1	60.6	114.4	84.0	11.4	10.2	10.4	88.67
4	필리핀	47.8	62.2	104.0	38.7	10.3	10.5	9.5	67.0
5	중국	9.8	18.1	58.8	51.7	2.1	3.0	5.4	225.6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승용차 수 증가와 함께, 자동차 관련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러시아의 도로사정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동차 타이어 등 소모성 제품에 대한 교체주기가 짧다는 점도 수입증가 전망 이유 중 하나임

4	품목명	폴리에틸렌(HS : 390120)
---	-----	--------------------

○ 시장동향

- 러시아 폴리에틸렌 필름 시장은 러시아 중합체(polymer) 필름 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폴리에틸렌 필름 시장의 증가율은 2011년 작년 대비 33.6%의 성장세를 시현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러시아 폴리에틸렌 시장은 571백만 달러 규모로 3년 연속 (2009-2011) 증가 추세임
- 주요 수입국은 핀란드로 2011년 기준 25%의 수입점유율을 기록중이며 한국은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함

[주요국별 폴리에틸렌(HS Code 39012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250.5	427.6	571.2	100	100	100	33.6
1	핀란드	92.8	125.5	140.9	37.0	29.4	24.7	12.3
2	한국	53.4	61.6	86.7	21.4	14.4	15.2	40.8
3	벨기에	18.9	35.4	57.6	7.6	8.3	10.1	62.7
4	독일	20.2	47.3	48.2	8.1	11.1	8.4	1.9
5	우크라이나	0.02	14.6	43.8	0.01	3.4	7.7	199.1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폴리에틸렌 필름 중 일부 필름(stretch film)의 경우, 러시아내 생산 기반이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시장 성장에 기반한 수입 전망이 높은 상황임

5	품목명	아연도금강판(HS : 870899)
---	-----	---------------------

○ 시장동향

- 러시아 아연도금 강판 시장은 408백만 달러 규모로 3년 연속 (2009-2011) 증가 추세임
- 러시아에서 아연도금 강판을 소비하는 주요 분야는 건축분야로 2005-2008년에 건축분야 성장과 함께 아연도금 강판 시장도 성장 중에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1년 기준 42%의 수입점유율을 기록함
- 한국의 아연도금 강판 대러 수출은 7위를 차지함
- 아연도금 강판의 주요 러시아 생산업체는 Magnitogorsk Iron & Steel Works (MMK), NLPK GROUP, AK LMZ, Severstal, 등임.

[주요국별 아연도금강판(HS Code 870899)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235.5	251.58	408.26	100	100	100	62.3
1	중국	26.2	52.9	169.9	11.1	21.0	41.6	221.28
2	우크라이나	31.8	41.9	86.7	13.5	16.7	21.2	106.5
3	에스토니아	8.9	15.3	24.2	3.8	6.1	5.9	58.0
4	핀란드	9.4	4.4	19.0	4.0	1.8	4.7	327.9
5	벨기에	6.9	10.1	18.5	2.9	4.0	4.5	83.0
6	모로코	0.9	2.56	17.4	0.4	1.0	4.3	579.5
7	한국	2.9	6.4	16.1	1.3	2.6	4.0	150.54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러시아 생산업체들이 생산하는 아연도금 강판 생산량은 러시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향후 수입 수요 전망 다대

6	품목명	노트북(HS : 847130)
---	-----	------------------

○ 시장동향

- 전년대비 러시아의 노트북 시장 성장률은 20.4% 기록. 2012년 노트북 매출 성장률은 22-25%로 예상

○ 경쟁 및 수입동향

- 러시아 노트북 수입시장은 30억달러 규모로 3년연속 증가추세를 보임
- 현지 인기 브랜드로는 ACER, ASUS, LENOVO 등이 있음.
- 중국이 2011년 기준 97%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대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주요국별 노트북(HS Code 84713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1551.5	3081.2	3094.9	100	100	100	0.5
1	중국	1470.5	2985.2	3009.9	94.77	96.89	97.26	0.83
2	일본	45.3	42.5	27.3	2.9	1.4	0.9	-35.6
3	대만	10.6	16.1	22.8	0.7	0.5	0.7	42.2
4	체코	4.7	9.6	11.6	0.3	0.3	0.38	20.8
5	한국	0.5	0.3	6.6	0.03	0.01	0.21	1,866.06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러시아 노트북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나,
- 한국 전자제품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 인식을 고려할 때, 충분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됨.

7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99)
---	-----	---------------------

○ 시장동향

- 러시아 자동차 매출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도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수입품목 중 하나임.
- 러시아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인기있는 품목은 변속기 관련 부품, 브레이크 패드 등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러시아의 자동차 부품시장의 중요 특징은 현지 자동차 제조기반 미약으로 수입(OEM 및 Aftermarket 부문 포함)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것임.
- 2011년 수입규모는 약 630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63% 성장한 수치임

[주요국별 자동차부품(HS Code 870899)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12.1Q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195.9	385.9	630.5	480.6	100	100	100	63.4
1	독일	30.4	51.3	81.7	44.5	15.5	13.3	12.9	59.1
2	한국	25.1	49.9	78.5	55.6	12.8	12.9	12.5	57.2
3	일본	40.6	59.1	76.3	41.3	20.7	15.3	12.1	29.2
4	중국	20.4	43.0	73.2	41.4	10.4	11.2	11.6	70.1
5	EU	8.7	23.1	62.8	34.6	4.4	6.0	9.9	171.9
6	미국	7.5	19.9	35.1	106.1	3.8	5.2	5.6	76.2
7	이탈리아	14.0	26.2	33.4	9.1	7.2	6.8	5.3	27.6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전문가들은 러시아 자동차 부품시장이 매년 20-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지의 제조업 기반 미약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8	품목명	LED TV(HS : 852872)
---	-----	---------------------

○ 시장동향

-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이후 LED 혹은 플라즈마 TV에 대한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텔레비전 제품 군 중 LED 혹은 플라즈마 TV가 마켓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추후 러시아 중산층 규모 확대에 의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인기가 제일 많은 제품브랜드는 Samsung, Philips, Toshiba, Sony, LG, Sharp, Panasonic, Pioneer 등임
- 주요수입국은 체코로 2011년 기준 23%의 수입점유율을 기록

[주요국별 LED 혹은 플라즈마 텔레비전(HS Code 852872)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614.6	578.3	477.4	100	100	100	-17
1	체코	87.2	65.1	108.1	14.2	11.3	22.6	66.1
2	중국	54.9	87.7	76.1	8.9	15.2	15.9	-13.22
3	폴란드	104.3	117.1	55.3	16.9	20.3	11.6	-52.77
4	슬로바키아	107.6	88.4	54.3	17.5	15.3	11.4	-38.6
8	한국	18.8	28.2	15.84	3.1	4.9	3.3	-43.9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비록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수입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LED 텔레비전은 현지 텔레비전 시장의 마켓리더 상품으로 최근 러시아의 중산층 확대 등으로 수요 및 수입전망이 밝은 상품임

9	품목명	굴삭기(HS : 842952)
---	-----	------------------

○ 시장동향

- 러시아의 굴삭기 시장은 약 1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중 수입제품이 75%를 점유

○ 경쟁 및 수입동향

- 2009년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러시아 내 굴삭기 제조업체 중 일부가 조업을 중단하였으며, TVEKS, DEZ와 같은 주요 굴삭기 제조업체가 있긴하나 증가하는 굴삭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이런 추세를 반영 2011년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도 동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주요국별 굴삭기(HS Code 842952)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12.1Q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234.7	474.9	1,190.5	697.3	100	100	100	150.64
1	일본	44.1	175.5	398.5	226.4	18.8	36.9	33.5	127
2	한국	25.6	118.6	370.6	194.7	10.9	24.97	31.1	212.47
3	독일	17.8	57.8	114.6	59.1	7.6	12.2	9.6	98.5
4	프랑스	19.6	35.4	94.8	59.6	8.3	7.4	7.9	168.2
5	영국	3.3	22.8	67.7	40.2	1.4	4.8	5.7	196.4
6	미국	74.4	21.1	64.4	65.6	31.7	4.4	5.4	206.1
7	벨기에	1.8	13.4	32.4	10.8	0.7	2.8	2.7	141.9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향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는 인프라 건설 붐등으로 이어져, 굴삭기에 대한 수요 및 수입 수요 증가 예상

10	품목명	신차 및 중고차(HS : 870322)
----	-----	-----------------------

○ 시장동향

- 러시아의 2012년 상반기 신차판매량은 약 107만대 수준이며, 이는 경제위기 이전의 판매량을 초과한 것임
- 현재 러시아 승용차 중 약 50% 가량이 5년 이상 된 차량으로 향후 차량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쟁 및 수입동향

[주요국별 신차 및 중고승용차(HS Code 401110) 대러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9	2010	2011	2012.1Q	2009	2010	2011	11/10
0	전체	1047.6	1188.7	1691.5	637.6	100	100	100	42.3
1	독일	68.1	113.2	335.4	157.6	6.5	9.5	19.8	196.42
2	우크라이나	119.4	135.5	216.3	50.7	11.4	11.4	12.8	59.6
3	체코	32.7	43.5	213.5	95.4	3.1	3.7	12.6	390.3
4	우즈베키스탄	62.3	153.2	209.4	116.4	5.9	12.9	12.4	36.7
5	일본	184.2	183.7	171.64	25.5	17.6	15.5	10.2	-6.56
6	스페인	28.2	52.4	110.6	39.3	2.7	4.4	6.5	111.1
7	폴란드	3.56	8.8	84.1	16.4	0.3	0.7	4.9	851.21
8	멕시코	0.1	0	61.26	45.31	0.01	0	3.62	0
9	영국	30.1	36.0	54.6	8.6	2.9	3.0	3.2	51.5
10	한국	353.03	240.4	35.8	21.9	33.7	20.2	2.1	-85.1

출처: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2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수입차에 대한 사용세(Utilization Fee) 부과로 경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비록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점점 더뎌지고 있으나, 아직 정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며, 매달 약 250,000대 가량의 신차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봄

나.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전시회 활용)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제품 홍보 필요
 - ※ 품목별 전시회 및 상세정보는 kotra 전시포털 사이트 인 www.gep.or.kr 등을 참조
- (조사대행 등 KOTRA 서비스 이용)KOTRA 바이어 찾기 서비스 및 맞춤형 시장조사 활용을 통해 적격 바이어 발굴
 - ※ kotra 홈페이지인 www.kotra.or.kr 을 통해 신청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극동 지역 대형 딜러 및 유통상을 통한 시장 접근 필요
 - 극동 지역은 광활한 영토에 비해, 시장이 주요도시 별로 산재되어 있음(극동 지역인구 약 640만명). 이에 지역에 산재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접근 전략보다는 극동지역의 대형 유통상 및 대형딜러들을 통한 수출방식이 효율적임
-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지속적인 시장진출 노력 필요
 - 러시아 바이어, 특히 극동 지역 바이어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통관절차 및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시장 진입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타 외국업체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시장진출 노력이 병행된다면, 오히려 시장경쟁에서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음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한국제품의 품질에 대한 현지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임
- 다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산 제품이 비교열위에 있어, 이를 상쇄할 만한 대체 요소(AS 등)가 필요함

□ 진출시 유의사항

- 러시아로 수출시 대부분의 제품에 자체 표준 인증인 GOST 획득이 필요하며 직접 인증 획득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한국 내 대행업체를 통해 GOST 인증이 가능

4. 노보시비르스크

가. 3대 수출유망품목

□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4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타이어 (4011)	822.3	-41.1	1,184.4	44.5	2,084.5	71.2	64.3	-25.9	96.3	49.7	151.4	57.3
2	히팅 케이블 등 (8516)	966.1	30.0	1,428.1	47.8	1,827.8	27.9	9.9	-51.2	21.5	117.3	33.2	54.2
3	전기발전기 (8502)	2,112.3	57.7	1,818.5	-13.9	1,875.1	3	0.6	-40.9	2.6	321	2.7	3.7

(자료원 : 러 연방 관세청)

- 주) 1. 순위는 무역관 현지 시장성에 따라 자체 평가후 3대 품목 선정
 2. 러 연방 관세청의 경우 HS 4단위까지만 통계 제공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타이어(HS : 4011)
---	-----	----------------

○ 시장동향

- 2011년 러시아의 타이어 수입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대비 71.2%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국산 타이어의 대러 수출은 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57.2% 증가
- 러시아 자체 타이어 공장은 SIBYR Russian tires, Nizhnekamskshina, ASHK 등 3개사가 대표적이나, 품질로 인해 주로 저가시장 점유
- 차량증가에 따라 타이어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Nokian, Yokohama, Pirelli, Continental 등이 현지 공장 운영 또는 건설 중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0년 41.9백만개의 타이어가 판매되었으며, 수입 타이어는 23.4백만 개를 차지하여 수입품과 현지 생산품 비율은 56:44로 나타남

<타이어(HS Code 4011)의 대러 주요 수출국(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1	일본	335.8	1	일본	370.3	1	일본	509.1
2	독일	69.9	2	중국	178.2	2	중국	384.8
3	중국	66.8	3	한국	96.3	3	한국	151.4
4	한국	64.3	4	독일	77.6	4	일본	137.1
5	필리핀	49.4	5	필리핀	62.7	5	필리핀	89.2
	합계	822.3		합계	1,188.4		합계	2,034.5

자료원: 러 연방 관세청, 주) 합계는 총 수입량을 의미

○ 선정사유

- 시베리아 전체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타이어 수요등 급증 추세
- 유럽산 등 타 국가 타이어와 비교 시 한국산 타이어가 가격대비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구매 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 추세

2	품목명	히팅 케이블(HS : 8516)
---	-----	-------------------

○ 시장동향

- 에너지 제품관련 리서치 회사인 TK Energoforum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의 히팅 케이블 시장 규모는 약 60억 루블(194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 러 연방 관세청은 HS Code 4단위까지 통계를 공개하는 관계로 히팅케이블에 국한된 공식 통계는 입수가 불가능
-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세가 저렴한 편으로 주택 개조시 침실, 화장실, 부엌 등에 전기 온돌을 설치하는 가정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국산이 전체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품질면에서 뛰어나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는 거의 없는 상황
- 외국 브랜드 중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은 Raychem, Nelson(미국)이며, 이외에도 Eltrace(프랑스), Eltrem(독일), Thermon(미국), Bartec(독일), Ensto(핀란드), FSR-Heat trace(영국), ABB-Moscable(스웨덴), DVU(덴마크), Fine(한국) 등이 있음

<히팅 케이블 등(HS Code 8516)의 대러 주요 수출국(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1	중국	400.1	1	중국	687.3	1	중국	850.8
2	독일	101.1	2	독일	114.9	2	독일	171.9
3	이탈리아	78.1	3	이탈리아	107.6	3	이탈리아	141.9
4	폴란드	51.5	4	폴란드	82.9	4	폴란드	107.9
5	터키	34.4	5	터키	42.4	5	터키	57.8
16	한국	9.9	13	한국	21.5	13	한국	33.1
	합계	966.1		합계	1,428.1		합계	1,827.8

자료원 : 러 연방 관세청

○ 선정사유

- 신규건설 및 주택 개보수시 현지 기후에 따라 전기 온돌 설치 수요 증가

3

품목명 전기 발전기(HS : 8502)

○ 시장동향

- 러시아 전기발전기 시장은 포화상태이기는 하나 최근 러시아 건설 붐에 따라 약 5%대의 성장을 기록
- 러시아내에 약 20여개의 디젤 전기발전기 생산회사가 있으나, 대부분 V형 발전기로 Perkins, Volvo 발전기와 비교시 크기가 크고 수명도 절반 정도인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디젤 전기발전기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대부분이 수입 제품
- * 러시아내 주요 생산회사로는 Vepr, Zvezda-Energetika, Yaroslavl Motor Plant, Electroagregat(Kursk City), VMD 등이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대러 전기발전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등임
- 수입산 주요 브랜드는 SDMO, FG Wilson, Cummins 등이 있음

<전기발전기(HS Code 8502)의 대러 주요 수출국(백만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1	미국	983.8	1	미국	446.5	1	독일	489.2
2	네덜란드	246.5	2	독일	191.9	2	미국	224.9
3	이탈리아	142.6	3	영국	172.7	3	영국	214.7
4	스웨덴	109.0	4	스웨덴	168.0	4	중국	163.8
5	프랑스	90.5	5	프랑스	164.9	5	프랑스	134.4
25	한국	0.6	27	한국	2.6	27	한국	2.6
	합계	2,112.3		합계	1,818.5		합계	1,875.0

자료원 : 러 연방 관세청

○ 선정사유

- 광물 발굴현장, 건설현장 등에서도 전기 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러시아의 경우 지역별로 살펴볼 때 40~70% 면적에는 중앙전력공급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전기발전기를 통한 전력공급 필요
- * 러시아인들의 경우 주말농장과 별장에 대한 소요 욕구가 높아 신규 다차 단지의 경우, 개별적으로 전기발전기를 해당 마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나.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2013년 2월 한국관 참가예정인 시베리아 건축자재 박람회 참가
 -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에서 2012년 9월말까지 참가업체를 모집
 - 히팅 케이블 등, 각종 건축자재 관련 바이어 발굴 가능
- 기타 마케팅에 대해서는 KOTRA 사업 활용 가능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최근 3-4년전부터 시베리아 지역 바이어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딜러를 통한 단순 주문방식에서 탈피, 직수입을 추진하는 사례 증가 추세
- 해외조사대행 등을 통한 바이어 발굴을 통해 시장접근 가능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러시아 자체인증(GOST) 획득 및 현지 딜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A/S 및 자체 유통망 구축 필요

□ 진출시 유의사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유의
 - (타이어, HS Code 401100009) 수입관세율 20% / 개당 최소 6.9유로, VAT 18%,
 - (히팅 케이블, HS Code 8516) 수입관세율 10%, VAT 18%, 인증 필요
 - (전기발전기, HS Code 8502) 수입관세율 0%, VAT 18%, 인증 필요.

5. 상트페테르부르크

가. 10대 수출유망품목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건설용 굴착기계 (842952)	234	-	474	202	1,190	250	25	-	118	463	370	312
2	자동차 타이어 (401110)	235	-	552	234	745	134	30	-	51	169	88	170
3	치과기기 (901841)	34	-	46	30	50	9	0.11	-	0.18	60	0.19	66

(자료원 : 러시아 관세위원회)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건설용 굴착기(HS : 842952)
---	-----	----------------------

○ 시장동향

- 2011년 러시아의 건설용 굴착기계 시장규모는 총 5만 7천대로 향후 연평균 12.2%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1-2016년 기간중 러시아의 굴착기계 생산은 연 5.2%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 국내에는 경쟁력 있는 전문 제조사가 적기 때문에 수입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굴착기계의 수입시장 규모는 1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50% 증가한 가운데, 한국산은 수입시장의 31%를 점유하고 있음
- 주요 경쟁 제품은 러시아산의 경우, TVEKS, UralVagonZavod, Dimitrovsky Ekskavatorny Zavod, 수입산 브랜드는 Hitachi, Komatsu, Caterpillar 등이 있음

○ 선정사유

-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에 따른 건설·인프라 수요 유지
- 공공시설 개보수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굴착기계 수요 증가

2	품목명	자동차 타이어(HS : 401110)
---	-----	----------------------

○ 시장동향

- 2011년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는 2010년 대비 39% 증가한 265만대이며, 2012년에도 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현대차 현지생산은 2011년 16만대에서 2012년 22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며 대러 수출 차량도 지속 증가 예상됨에 따라 타이어 수요도 증가예상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자동차 타이어의 수입시장 규모는 7억 4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34% 증가한 가운데, 한국산은 전체 수입시장의 11.8%를 점유하고 있음.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이 주요 경쟁국임.

○ 선정사유

- 러시아 기후 특성상 동절기 및 하절기 타이어 교체가 빈번

3	품목명	치과기기(HS : 901841)
---	-----	-------------------

○ 시장동향

- 향후 5년간 연 12%의 의료 서비스 시장 확대가 전망됨
- 수질불량으로 인한 치과 환자 증가 및 민간 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관련 의료용품의 수요는 지속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1년 치과기기의 수입시장 규모는 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9% 증가함
- 독일산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하고 있으며, 한국산은 수입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나 향후 수출이 유망한 분야임.

○ 선정사유

- 중산층 소득증가로 건강 및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 러시아 정부의 의료시설 현대화 계획 및 투자 확대

나.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건설용 굴착기계)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 최대전문 전시회인 모스크바 국제건설기계전(2013년 5월)에 참가 고려
- (자동차 타이어) 2012 Avtovaz Autoplaza(2012년 11월, 모스크바) 및 Global Autoparts Initiative(2013년 상반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참가
- (치과기기)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2012년 12월)에 참가하거나 러시아 북서지구 진출을 위해서는 개별 해외세일즈출장 및 무역사절단 참가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치과기기의 경우, 지역 소재 33개 국영 치과치료기관의 정부보조기금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자동차 타이어 및 굴착기계는 가격 경쟁력 확보 및 현지 수요 등을 감안, 현지 투자진출 검토하고 굴착기계의 경우, A/S 제공 및 현지 유통딜러 발굴 모색

□ 진출시 유의사항

- 신용장 거래보다는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 선수금 및 잔금 지불 방법 구체적 논의 필요
- 현지 중간유통망의 높은 유통마진 및 물류운송비(시베리아횡단철도), 부가세(18%) 등 고려 필요
- 자동차 타이어 수입관세율 20%, 치과기기 및 굴착기계 수입관세율 5%

Ⅲ. 우크라이나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1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2008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질 GDP 성장률이 2009년 -15.2%, 2010년 3.5%, 2011년 5.2%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3.0%, 2014년 3.6%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2009~2011년간 우크라이나의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상반기 통계는 입수할 수 없음

<최근 3년 전체 수입 및 對한국 수입(단위 : U\$백만, %)>

구분	2009	2010	2011	증감(11/10)
전체수입	45,435	60,739	82,607	36%
대한국 수입	567.6	786.0	1,235.9	57.2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201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다소 침체가 예상되나 소득양극화 및 지하 경제 규모가 커 고급품에 대한 민간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은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철도차량의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2010	2011	2012(예측)	2013(전망)
실질GDP성장률	3.5	5.2	2.5	3.0
산업생산	8.5	7.6	0.0	5.0
소비자물가상승률	9.2	8.0	2.6	8.2
환율 (U\$)	7.96	7.99	8.60	8.69
실업률	8.4	7.9	8.5	8.3

자료원 : EIU, 우크라이나 경제부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우크라이나는 세계경기 침체와는 별도로 2008년 10월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지원 상태에 있음. 2009년 실물 및 금융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0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다소 침체된 상황임.
- 풍부한 자원, 가스수입 이외 낮은 대외의존도로 자체 갱생기반 존재

○ 금융부문

- 외환보유고가 약 3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는 않음

2 3대 수출유망품목 선정요인

□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 %)

순 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부품 (870829)	61.8	44.5	81.6	31.94	-	-	1.1	2,006	2.2	91.1	0.8	-44.0
2	태양광 모듈 (854140)	8.9	48.5	13.0	46.9	-	-	0.004	-97.4	86.3	2,208,007	12.4	-78.0
3	의료용X-Ray (902214)	32.9	0.79	72.1	118.9	-	-	0.7	199.2	3.6	412.5	0.2	-69.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무역협회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 부품(HS : 870829)
---	-----	---------------------

○ 시장동향

-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207천대 정도의 신차가 판매되어 2010년 대비 38천대가 증가한 수치이나, 자동차용 차체 부분품 자체 생산은 거의 없어 수입수요에 의존하는 상황임
- 2011년 한국산 승용차가 49,800여대 판매되었으며, 이는 2010년보다 12,800여대가 더 판매된 것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에 따라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의 수입도 전년 대비 각각 2010년 44.5%, 2011년 31.94% 증가하였음
- 2012년에는 약 206천대의 신차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동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차체 부분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Association of Ukrainian Automobile Manufacturers)

○ 경쟁 및 수입동향

- 전체 수요의 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1%만이 자체 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 선정사유

- 자동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평판이 좋아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부품, 차체 부분품 등의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	품목명	태양광 모듈(HS : 854140)
---	-----	---------------------

○ 시장동향

- 우크라이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따라 태양광 모듈 수입수요도 전년 대비 2010년 48.5%, 2011년 46.9% 각각 증가하였음.
- 우크라이나에는 4개의 실리콘 와이퍼 제조업체가 있고 1개의 태양광 모듈 및 판넬 제조업체(Kvazar)가 있으나 우크라이나 제조업체들은 생산제품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들은 모듈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자료원 : Renewable Energy Center)

○ 경쟁 및 수입동향

- 전체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5%만이 자체 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독일 순이며, 한국은 2011년 기준 11번째 수입대상국임

<우크라이나의 태양광 모듈 주요 수입국>

순위	국가명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중국	3.531	27.06
2	일본	2.195	16.83
3	대만	2.156	16.53
4	러시아	1.491	11.43
5	독일	0.764	5.86
11	한국	0.205	1.5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우크라이나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음. 2011년 185.689MW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는데, 2012년에는 5배 증가한 1GW 설치될 예정임
- 따라서 태양광 모듈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므로 한국산의 진출 전망이 밝음

3	품목명	의료용 X-Ray(HS : 870829)
---	-----	------------------------

○ 시장동향

-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영 의료병원 현대화가 진행중이어서 의료장비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의료용 X-Ray의 수입은 전년대비 412% 증가하였음
- 우크라이나의 의료용 X-Ray 제조업체는 SoyuzMedTech, Kras, Kvant 등이 있으나, 품질 수준이 낮아 병원들은 GE, 필립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출처 : Ukrainian Medical Association)

○ 경쟁 및 수입동향

- 전체 수요의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35%만이 자체 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순임

<우크라이나의 태양광 모듈 주요 수입국>

순위	국가명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한국	14.342	19.90
2	일본	12.882	17.87
3	이탈리아	11.375	16.28
4	네덜란드	8.433	11.70
5	미국	5.839	8.10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시장은 성장단계에 있는 산업으로 정부가 의료현대화 계획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추세에 있음
- 대부분의 국영병원은 10~15년 전의 X-ray를 보유하고 있어 너무 낡았으며,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사립 병원들도 수입 의료장비를 선호하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음

3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자동차 부품

-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문 전시회에 참가 또는 참관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를 위한 출장시 무역관에 비즈니스 출장 지원 요청 가능
- 2012 Int'l Trade Exhibition InterStorage (2012.10월, 키예프)
- TIR 2012 (2012.10월, 키예프)
- Road Tech Expo 2012 (2012. 11월, 키예프)
- 조사대행(바이어 발굴)을 활용, 우크라이나의 주요 자동차 부품 유통상 (AD Group, Vladislav, Omega Autopostavka, Elit Ukraine 등)을 접촉, 진출하는 방안이 유효

○ 태양광 모듈

- KOTRA 조사대행(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지의 주요 태양광 에너지 기업(Activsolar, Rentechno)을 직접 접촉하거나 State Agency for Energy Efficiency and Saving of Ukraine, Renewable Energy Center 등과 같은 정부기관을 접촉하여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정보 및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현지 전시회에 참가 또는 참관
- Exhibition of Power Effective Building and Design (2012.10, 드네프르)
- Heating (2012년 10월, 르보프)
- Int'l Exhibition of Generation, Distribution and Energy Conservation, Alternative energy Sources(2012.10., 키예프)

○ 의료용 X-Ray

- 의료기기와 관련한 현지 전문 전시회에 참가 또는 참관
 - Int'l Specialized Exhibi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2012.9., 키예프)
 - Int'l Specialized Exhibition of Goods of Health (2012.9., 키예프)
 - Int'l Medical Exhibition Public Health (2012년 10월, 키예프)
- 조사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며 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 출장서비스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한 거래 진행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및 바이어 의견

- 자동차부품은 전문 유통상을 접촉하여 수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효한 마케팅 전략이며 상담시에는 가격대비 질이 우수한 대표 제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태양광 에너지는 관련 주요업체를 접촉하여 수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며 우크라이나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 생산방식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바이어들은 국내 및 해외 병원에 X-Ray를 설치한 경험이 있느냐를 주요 거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EU, 미국, 러시아 등에서의 설치 경험을 강조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진출시 유의사항

- 자동차용 부품 수입관세는 0%이며, VAT는 20%
- 태양광 모듈과 X-Ray 기기는 자체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준비기간이 필요함

IV. 카자흐스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1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카자흐스탄 국내총생산은 1759억 달러로써, 전년대비 7.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GDP 증가의 주요인은 국제유가 상승과 산업 생산량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음
- 2012년 1분기 실질 GDP는 전년대비 5.6%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7.5%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수치임
- 이는 4-5월 중 산업생산 증가율의 둔화(5월 전년대비 0.9%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카자흐스탄 당국과의 연례협의를 마친 IMF는 2012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을 6%로 예상

○ 카자흐스탄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카자흐스탄 경기 위축으로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무역흑자를 주도했던 수출품(합성수지, 승용차, 건설 중장비)들이 큰 감소세를 보임

<카자흐스탄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HS코드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기계	84	409.6	18.27	31.73
철강제품	73	242.0	10.79	88.23
전기기계	85	225.5	10.06	28.90
차량(철도제외)	87	174.7	7.79	34.75
제약품	30	82.6	3.68	45.41
총 계		2,242.0	100	31.73

주 * : 카자흐스탄 통관 금액, 2012년 6월 기준 (자료: WTA, 카자흐스탄 통계청)

- 이 후 카자흐스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2010년 상반기 대 카자흐스탄 한국 수출은 99% 증가하였음
- 2011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25.2%를 기록하였음. 2012년 상반기 대 카자흐스탄 한국 수출은 26.9%로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스프링, 자전거,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등임

<카자흐스탄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HS코드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광물성 연료	27	5,876.8	75.34	-25.87
철강	72	422.3	5.41	26.23
구리, 동	74	283.2	3.63	24.99
보석용 원석	26	186.7	2.39	88.22
무기화학제품	28	112.4	1.44	-35.84
총 계		7,800.0	100	-15.71

주 * : 카자흐스탄 통관 금액, 2012년 6월 기준 (자료: WTA, 카자흐스탄 통계청)

- 2012년 상반기 양국 간 총 교역량은 2012. 6월 기준으로 5.56억 달러이며, 이중 대 카자흐스탄 수출이 3.93억 달러, 수입이 1.63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대 카자흐스탄 투자규모(신고누계)는 약 30억달러에 달함

<대 카자흐스탄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HS	2011		2012(1월~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승용차	7411	116	190.7	85	63.9
칼라TV	8211	90	211.7	45	96.8
합성수지	2140	102	14.1	40	-33.8
전선	8500	7	826.2	22	697.0
건설중장비	7251	28	81.8	17	-3.3
총 계		757	25.2	393	26.9

주 * : 수출 금액기준 순위임, (자료: WTA, KOTIS)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단위) 연도		2009	2010	2011
인구(만명)		1,580.0	1,643.3	1,647.3
GDP	총액 (억 KZT)	155,574	202,040	253,650
	총액 (억 USD)	1,056	1,377	1,758
	성장률	1.2%	7%	7.5%
	1인당 GDP (USD)	6,683	9,000	11,300
산업생산 성장률		1.5%	10%	3.2%
월평균임금(USD)		487.7	490	604
인플레이션(%)		7.3	7.1	8.3
평균 환율		148.2	147.35	146.6
대출금리(%)		6.8	8.3	7.0
무역 (억 USD)	교역량	727.3	812.6	1,261.1
	수출	439.6	572.4	881.1
	수입	287.7	240.2	380.4
	무역수지	151.9	332.2	500.7
총 외채 (백만 USD)		111,096	95,554	98,619
외국인직접투자		9,526	11,000	17,100
재정수지		-3.2	-3.0	-2.3
실업률 (총인구 대비, %)		6.3	5.5	5.3
외환보유고 (억 달러, 국가기금포함)		476	283	341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였으며, 이는 실물경제의 악화로 이어졌음.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SE)에 상장된 기업수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144개 기업에서 107개로 감소함
- 알마티시 부동산 매매가격이 2008-2009년 동안 60% 이상이 하락되었고 매물량이 40% 줄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10년 상반기부터 건설경기 회복세가 보이고 있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 지표들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의 실업자는 2012. 6월 기준으로 470,600명으로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5.2%에 해당함.
- 월평균 임금은 98,942텐게(약 \$664)로서 2011년 대비 17.6% 인상됨. 하지만 구매량 감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미뤄 보았을 때, 실질적 실물경제의 회복은 더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정적이지 않은 원유 가격은 무역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금융부문

-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은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호황으로 현지은행의 대출비율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2007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여, 현지은행들의 자금난,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이 침체됨
- 이후 2008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은행의 국유화, 은행들의 구조조정, 오일기금을 통한 구제금융 실시 등으로 경기 부양을 꾀함. 2008년 현지화 텐게 절하 조치(25%)로 환율 변동을 안정화하였으며, 2010년 산업생산증가(산업생산 증가율 7.4%)와 국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함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2년 카자흐스탄의 국가기금 중 유로의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5% 감소함으로써, 유럽 금융위기 대비책을 마련함. 2012년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기금(국유펀드)을 이용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발표함
- 2012년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예금보험기금의 제안에 따라 텡게화 예금에 대한 최대 금리는 9%, 외환 계좌 금리는 6%로 제한될 것이며, 이는 은행 시스템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10대 수출유망품목 선정요인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 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카자흐스탄 수입시장						한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안구인식시스템 (847180)	11.4	-10.3	19.5	70.2	7.2	29.6	0.05	68.1	0.01	-80.6	0.008	4150
	지문인식시스템 (847190)	7.8	74.5	8.1	4.7	2.3	-3.9	0.1	2816	0.07	-60.5	0.02	1578
2	난방설비 (840310)	19.7	2.5	16.6	-15.4	8.6	261.5	5.2	53.9	6.1	17.1	33.3	142
3	폴리에틸렌 (390120)	99.7	51.9	115.3	15.6	55.7	4.6	35.6	40.6	42.3	18.6	20.9	-1.5
4	디지털 도아록 (830140)	4.6	-21.1	4.6	-1.2	2.3	51.3	0.1	38.1	0.1	1147	0.01	106.6
5	콘택트렌즈 (900130)	1.9	51.8	2.2	15.2	1.0	5.9	n/a	-	n/a	-	n/a	-
6	셀룰러 통신망 (851712)	89.6	164.3	295.9	229.9	132.2	34.0	3.7	-29.8	12.4	230.6	6.4	64.2
7	태양광 발전기 (854140)	6.9	951.6	2.3	-63.9	1.8	224.5	0.4	-	0.003	-92.3	0.02	5620
8	온실 (940600)	352.7	137.6	281.2	-20.2	39.0	-61.1	3.1	16.5	12.8	306.4	1.0	165.2
9	디스플레이 (847160)	15.2	23.6	16.9	10.9	7.2	34.6	0.7	84.0	0.1	133.7	0.3	1869
10	천장램프 (9405.10)	27.1	-6.8	28.9	6.8	14.9	71.9	1.3	3376	2.2	60.8	1.3	180.7

(자료원 : WTA, 카자흐스탄 통계청)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생체인증 출입통제 시스템(HS : 847180 / 847190)

* HS code (8471.80) : 안구 인식 시스템 / HS code (8471.90) : 지문 인식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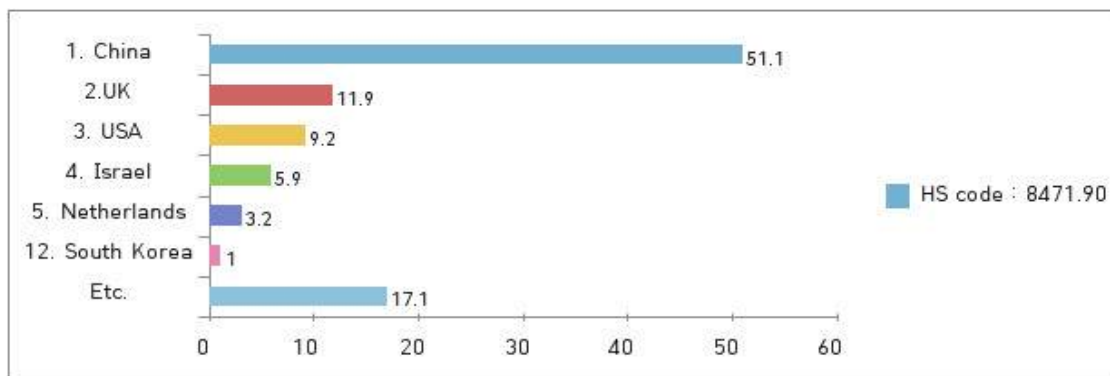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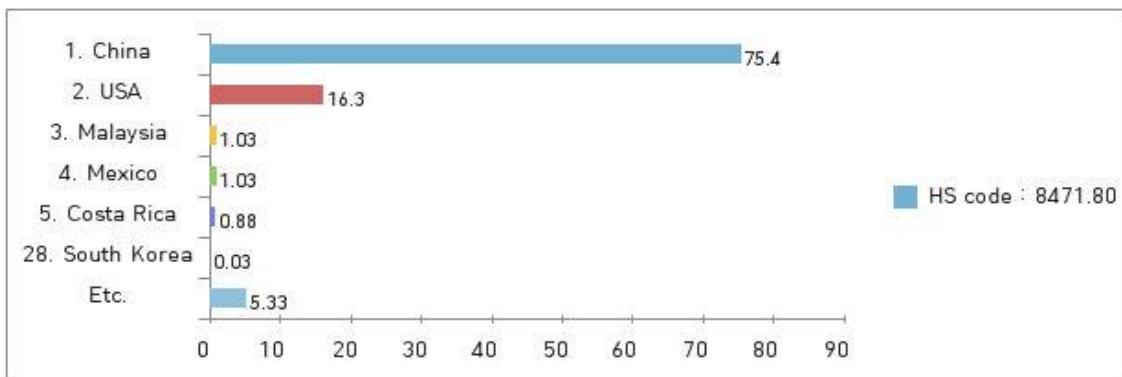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847180	19,500,803	70.28	11,600
847190	8,199,026	4.70	78,800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선정사유

- 산업 생산량 증가 및 치안 악화로 인한 보안시스템 수요 증가
- 보안시스템의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수출시장의 활성화

2	품목명	난방설비(보일러)(HS : 840310)
---	-----	------------------------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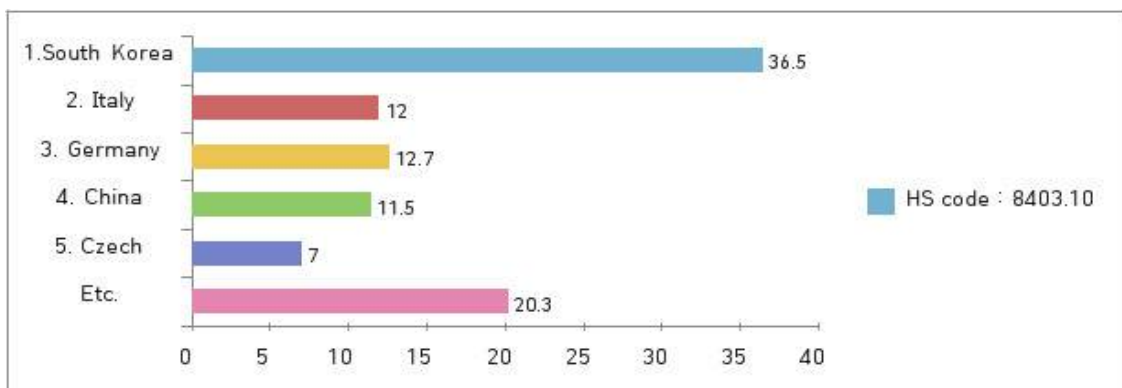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840310	16,644,223	-15.49	6,195,500

- 수요특징 : 완제품 생산기반의 미비로 대량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카자흐스탄 현지 난방기계 생산업체는 약 3개 정도 존재하며 소규모 기업, 부품 생산전문 기업, 한국과의 연계 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제 현지 생산량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겨울이 춥고 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난방설비의 지속적인 수요 존재.
- Akmolinsky주 및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난방시설 부족으로 인한 수요증가
- 개별난방 시스템의 교체수요의 증가로 인한 수요증가

3	품목명	폴리에틸렌(HS : 390120)
---	-----	---------------------

○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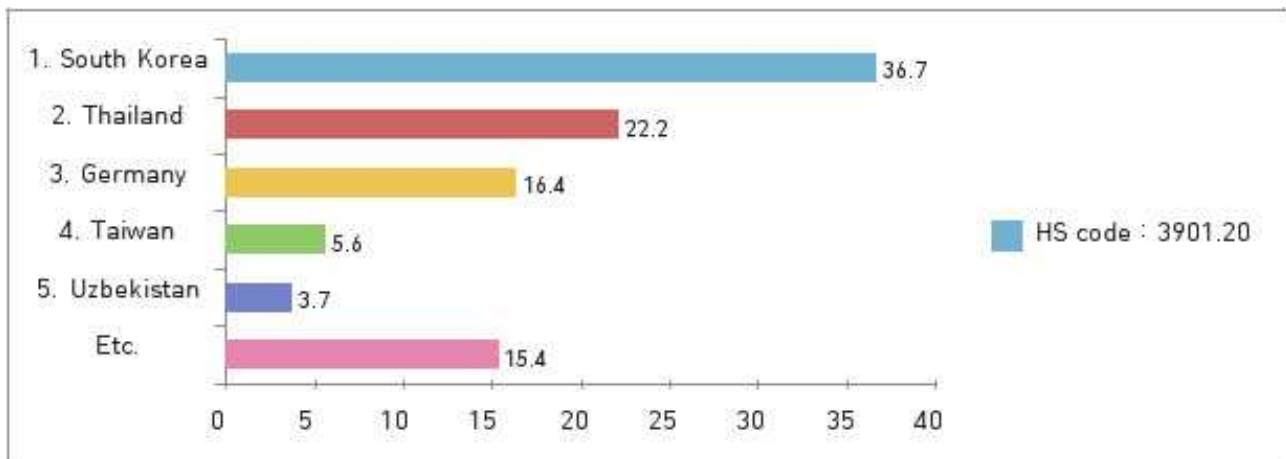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390120	115,335,503	15.61	42,328,928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추진에 따른 생산 시설 증가
- 폴리에틸렌 파이프 제조 공장의 수요증가로, 폴리에틸렌 수요증가
-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의 증가로 포장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포장에 필요한 원료인 폴리에틸렌 수요증가

4	품목명	디지털 도아록(HS : 830140)
---	-----	-----------------------

○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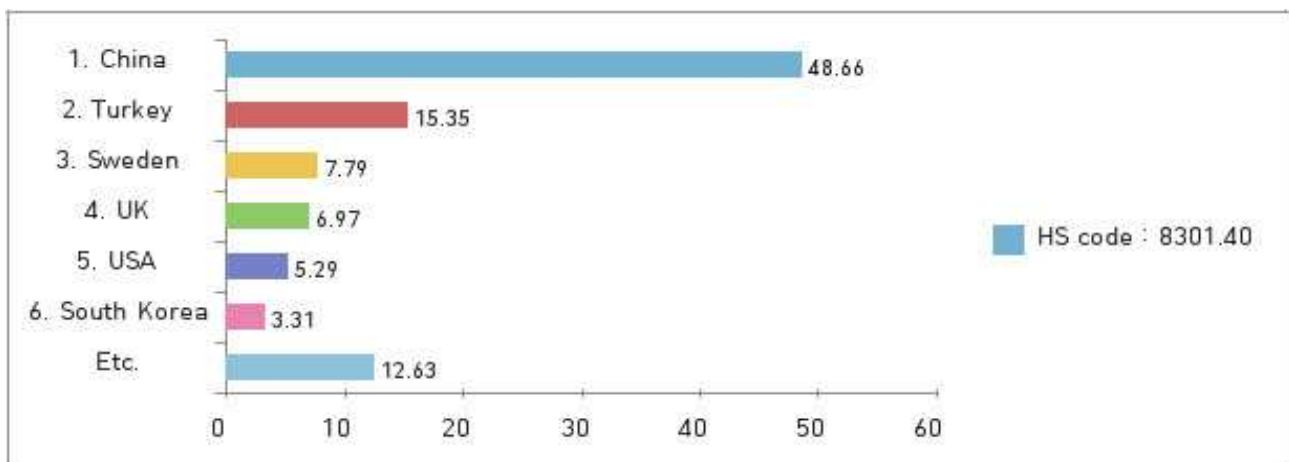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830140	4,657,700	-1.29	153,459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이 있으나, 품질저하로 문제로 대부분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총 시장규모 : 5,000,000 USD (2011년 기준)
수입규모 : 4,657,700 USD (2011년 기준) - 93.15%
현지생산 : 342,300 USD (2011년 기준) - 6.75%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 건설경기의 회복세로 디지털 도아록 수요증가
- 구 건물들의 리모델링 수요증가로 디지털 도아록 수요증가

5	품목명	콘택트 렌즈(HS : 900130)
---	-----	----------------------

○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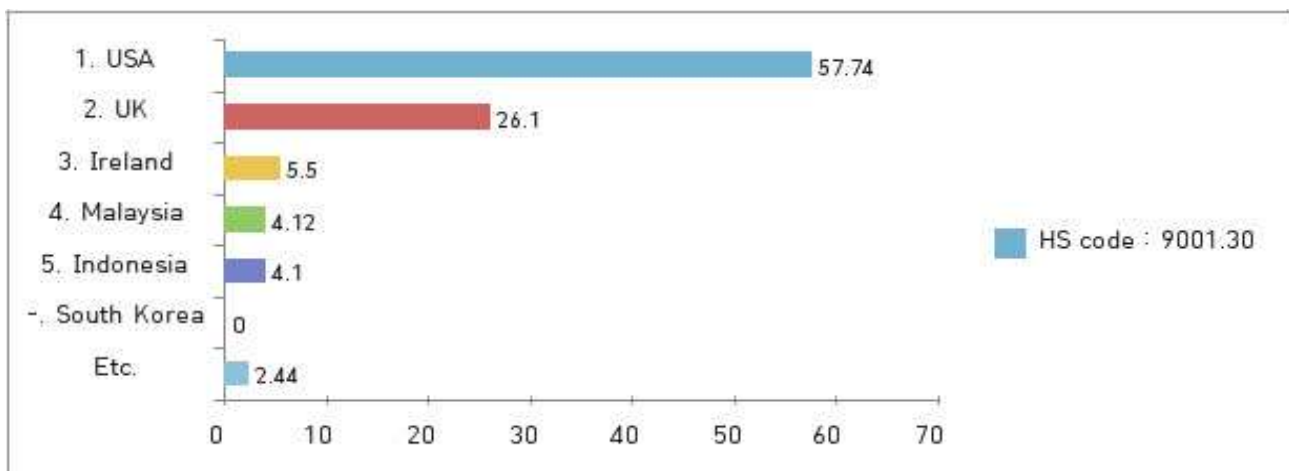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900130	2,225,330	15.26	n/a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한국이 경쟁국들에 비해 뛰어난 기술력 및 가격대 보유
- 저 시력 인구의 증가로 콘택트렌즈의 수요증가
- 중산층의 증가로 컬러렌즈 등 미용 렌즈의 수요증가

6	품목명	셀룰러통신망(HS : 851712)
---	-----	----------------------

○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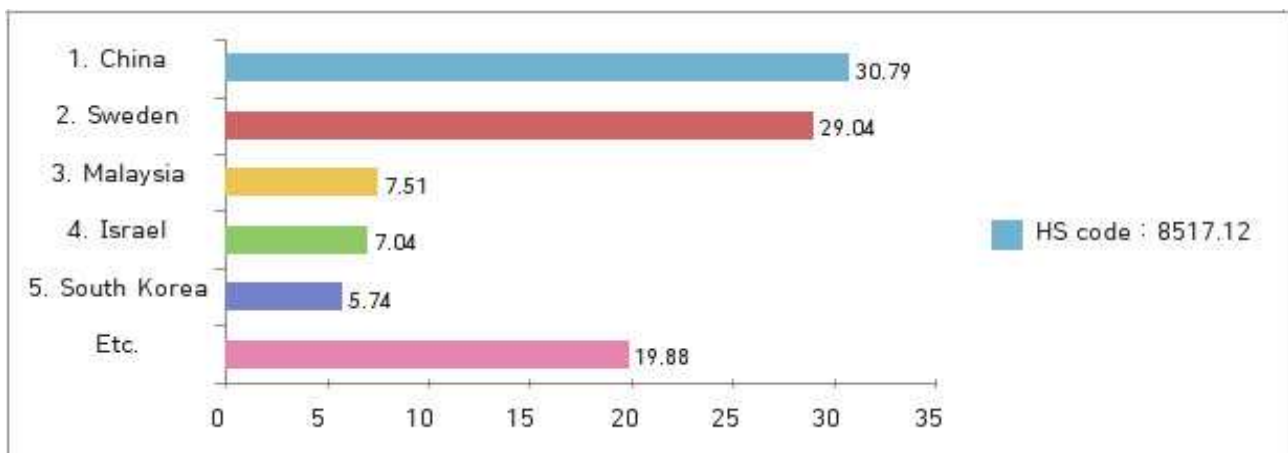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851712	295,960,761	229.97	12,493,200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시장의 연간 15% 성장 및 통신기업의 통신시스템 업데이트 증가로 셀룰러통신망의 수요증가
- 통신시스템 범위의 확대로 셀룰러통신망의 수요증가

7	품목명	태양광 발전기(HS : 854140)
---	-----	-----------------------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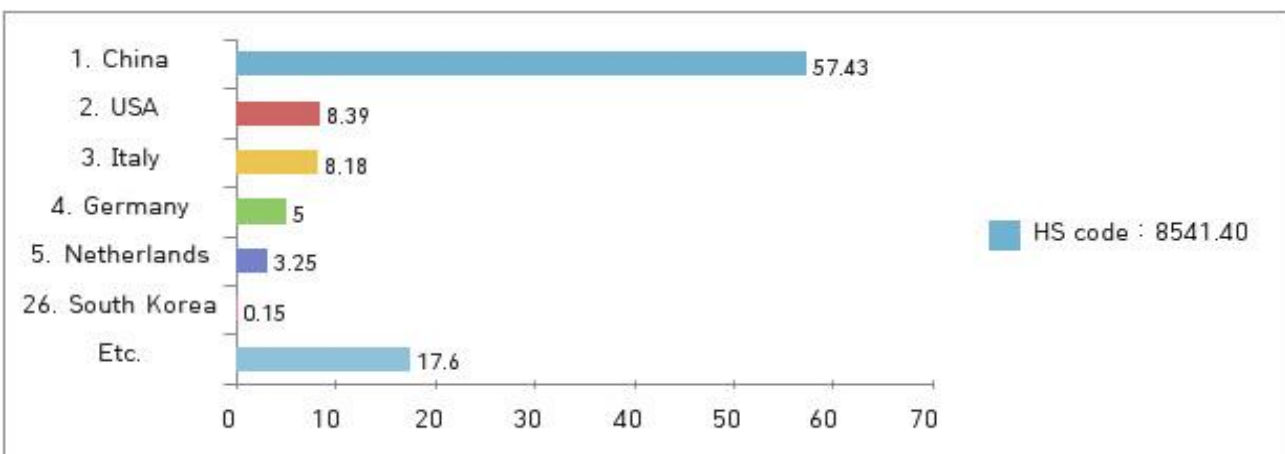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854140	2,341,772	-63.95	3536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으로 수입. 2010년 대비 2011년 시장이 하락하였으나 2012년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며 이는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태양광 발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총 시장규모 : 3,000,000 USD (2011년 기준)
 수입규모 : 2,341,722 USD (2011년 기준) - 78.05%
 현지생산 : 658,278 USD (2011년 기준) - 21.95%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햇빛이 많은 환경적 지리적 상황에 의한 높은 발전 가능성이 큼
- 국가적 차원의 대체에너지 개발노력 증가로 태양광 발전기의 수요증가.

8	품목명	온실(HS : 940600)
---	-----	------------------

○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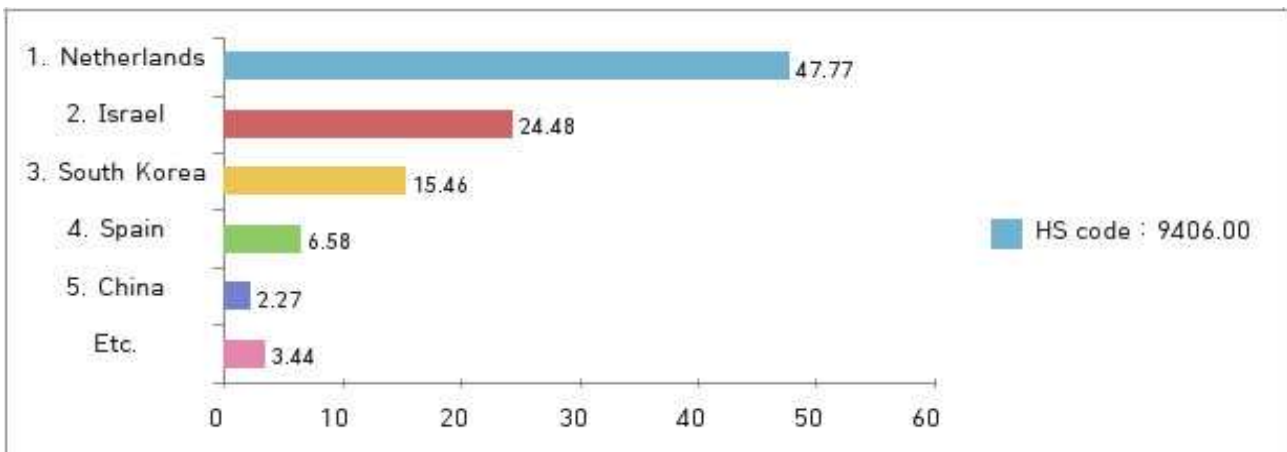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940600	281,273,200	-20.26	12,805,100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통계적으로는 전체 수입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 수출량은 2010년 16.52%, 2011년 306.43%, 2012년 165.23%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노후된 농업 기술의 현대 농업기술로의 전환으로 그린하우스 수요증가
- 그린하우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로 그린하우스 수출용이

9	품목명	디스플레이장치(HS : 847160)
---	-----	-----------------------

○ 시장동향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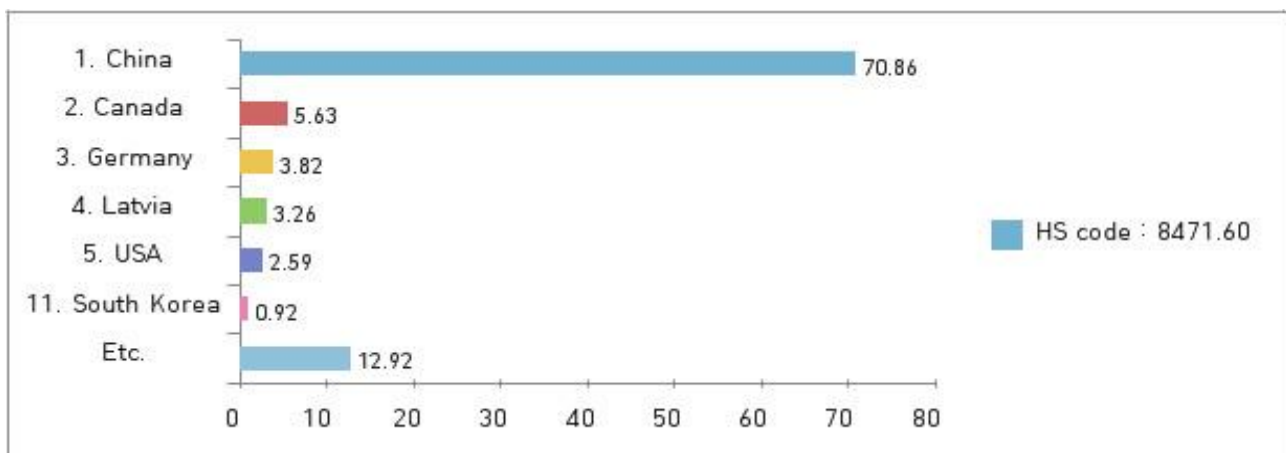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847160	16,980,722	10.99	157,531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 교육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양방향보드 지속 증가 예상
- 기업 및 국가에서 현대식 사무실로의 리모델링으로 양방향보드 수요증가

10	품목명	천장용 램프(HS : 940510)
----	-----	----------------------

○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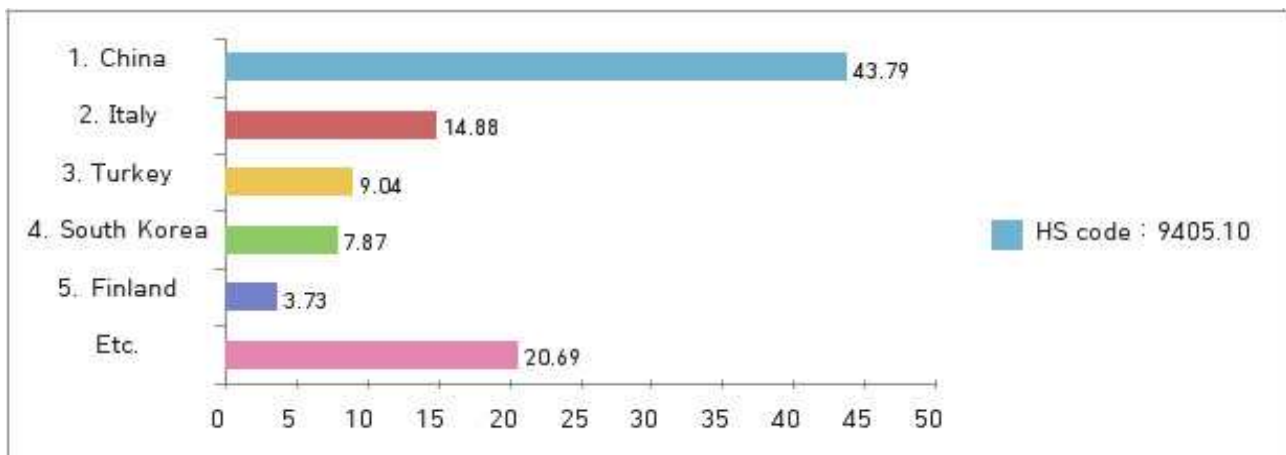
- 수입시장규모(단위 : 달러, % / 2011년 기준)

HS code	수입시장규모	증가율(%)	한국 수출량
940510	28,975,194	6.8	2,208,300

- 수요특징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대한수입비중 및 순위 포함)



○ 선정사유

- 고품질 램프로의 교체로 벽면 및 천장용 램프의 수요증가
- 카자흐스탄 건설경기의 회복세로 벽면 및 천장용 램프의 수요증가

3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은 KOTRA 국내 전시회 참가 바이어와의 상담
 - IT분야 : Global Smart SOC(2013년 상반기)
 - 건설플랜트 분야 : Global Project Plaza(2013년 상반기)
- 해외시장 조사대행 및 현지 출장을 통한 면대면 상담 필수
 - 카자흐스탄은 바이어들이 회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일차적으로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을 수행하고, 해당 바이어에 대하여 현지 출장을 통한 상담이 필수적임
- 전시회의 경우, 높은 참가비로 인하여 참가보다는 참관을 통한 업체 상담이 더 효과적,
 - 전시회 개막 최소 한 달 이전에 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를 통한 참가 업체와의 상담주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지에서 열리는 아래 전문 전시회에 참관하는 것이 가능
 - . 건축자재 : KAZBUILD(2013년 4월, 알마티)
 - . 의료기기 : KIHE(2013년 5월, 알마티)
 - . 보안기기 : Central Asia Secure World(2012년 11월, 알마티)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소량수출이라도 카자흐스탄 진출 경험을 우선 확보하고 전문바이어 보다는 다품종 거래 바이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력 바이어 1-2 개사를 통한 딜러 계약 체결이 중요함

- 기존 유망 품목 및 성공사례에 집착하지 않고,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시장 협소로 성공분야는 성공과 함께 이미 포화된 시장인 경우가 많아, 시장성의 '착시현상' 유발 가능
- 바이어의 신용도 파악이 어려우면서 지나친 요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합작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인 시장 트렌드 고려하여, 폴옵션보다는 기본 모델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현지 기술력 낙후로 현지기업을 통한 A/S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 또는 장비류의 경우 A/S에 대한 지원 방안 협의가 중요

□ 진출시 유의사항

- 카자흐스탄은 구 소비에트 연방국의 특징인 정보의 폐쇄성, 비밀주의, 정부행정절차 복잡성, 관료부패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라로 카자흐스탄 진출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임
-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 동서간 거리 3,200km, 남북간 거리 1,600km에 이르는 만큼 과도한 운송비 부담으로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음
- 통관제도의 미정비로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통관, 중국, 터키 등과 보따리 무역상의 활동이 성행하고 있어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V. 아제르바이잔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1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월드뱅크, 2012년 GDP 성장률을 3.1%로 하향 전망('12.6)
- 종전 6.1%('11)에서 3.1%로 下向 - 주요 요인은 원유·가스가격 하락
- 과거 3년간 GDP 성장률은 9.3%('09), 5%('10), 0.1%('11)

○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2012년 상반기 무역 규모는 171.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출 127.1억달러(2.9% 감소), 수입 44.6억달러(3.14% 증가)를 기록하였음
- 2012년 상반기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1.48억달러로 50.3% 증가하였는데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 수출급증에 기인하여 차량 수입은 '12. 1~4월간 전년 동기대비 61.6% 증가하였음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2년 상반기 아제르바이잔의 재정 수입은 8,134백만 마나트(GDP의 31.5%)이고 재정 지출은 7,109백만 마나트(GDP의 27.5%)임
- 같은 기간 상반기 에너지 생산량은 원유가 22.16백만톤(6.8% 감소)이며 가스는 8.84bcm(billion cubic meters, 8.2% 증가)임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대표지표인 교통 수송량이 '12년 상반기 103.3 백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에 그침
- '12년 2/4분기 부동산 가격도 전분기 대비 0.5% 하락

○ 금융부문

- 아제르바이잔의 금융부문은 해외 금융기관들과 연관성이 낮아 해외영향이 낮은 편
- 유가가 \$80달러/배럴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7월 말 기준, 원유가는 배럴당 \$92.33달러)

2 3대 수출유망품목 선정요인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4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09		2010		2011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부품 (8708)	29.0	28.7	59.5	205.2	33.8	-43.2	1.5	-3.6	3.6	138.0	24	145.4
2	위성방송수신기 (8528)	8.1	33.2	12.7	56.8	15.9	25.2	-	-	0.9	2,505	0.1	857.8
3	의료기기 (9018)	64.7	57.9	54.3	-16.1	48.5	-10.7	2.1	-19.7	2.2	5.3	1.0	64.3

자료원 : 주재국 수입시장 통계 -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청, 아국 수출통향 - 한국무역협회

주 : 아제르바이잔은 undervalue가 横行하여 수입통계의 신뢰성이 매우 낮음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부품(HS : 8708)
---	-----	------------------

○ 시장동향

- 시장규모 : 2011년 기준 1억 달러 수준 추정
- 수요특징 : 최근 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 확대 추세

<차량/도로 관련 주요 지표>

연번	주요 지표	2008	2009	2010
1	차량대수	860,047	925,866	982,553
2	도로길이(km)	18,902	18,946	18,977
3	화물운송량(tons)	87,989,000	94,236,000	99,891,000
4	연료소비량(tons)	940,400	979,100	1,029,100
5	운송수입(USD)	543,675,000	724,958,000	853,410,000

자료원 :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청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입 및 현지생산 비율 : 자국내 생산 없으며 100% 수입 의존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 아제르바이잔 공식수입통계상 '11년 연간 수입금액은 3,381만달러이나 이는 관세 및 부가세(5%, 18%)를 피하기 위해 undervalue하기 때문으로 실제 수입은 훨씬 많음

○ 선정사유

- 소득 증가로 인한 자동차 보급 확대
- 전에는 일본과 유럽차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2000년도 이후 한국차의 점유율 급증하였고 이후, 유지보수 필요성에 따른 수요발생

2	품목명	위성방송수신기(HS : 8528)
---	-----	--------------------

○ 시장동향

- 시장규모 : 2011년 기준 약 2,500만 달러 수준 추정
- 수요특징 : 지속적인 주택건설 붐에 따라 위성수신기 수요도 증가
· 아제르바이잔은 1인당 주거면적이 약 8s/m 불과, 주택건설 활발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입 및 현지생산 비율 : 자국내 생산 없으며 100% 수입 의존
- 아제르바이잔 공식수입통계상 '11년 수입금액은 1590만달러이나 이는 관세 및 부가세(5%, 18%)를 피하기 위해 다른 품목으로 분류하거나 undervalue하기 때문으로 실제 수입은 보다 많음

<위성방송수신기의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순위	국가	수입금액(백만달러)			점유율(%)			증감(%)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1
1	중국	1.3	2.2	5.4	17.3	17.8	34.1	139.4
2	한국	0.7	2.0	3.4	8.9	15.9	21.4	67.2
3	독일	0.9	4.6	1.2	11.8	36.4	7.9	-72.7
4	노르웨이	0.1	0.1	1.2	0.5	0.2	7.7	5214.2
5	네델란드	0.2	0.2	1.0	3.1	1.3	6.1	473.8
-	합계	8.1	12.7	15.9	100	100	100	24.6

자료원 :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청

○ 선정사유

- 이슬람 국가로 특별한 오락이 없어 가정에서 위성방송 수신 많음
- 신규 주택 건설이 활발하여 위성수신기 수요 증가세

3	품목명	의료기기(HS : 9018)
---	-----	-----------------

○ 시장동향

- 시장규모 : 2011년 기준 1억 달러 상회
- 수요특징 : 아직 시장은 작으나 정부의 보건분야 투자확대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규모 계속 확대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입 및 현지생산 비율 : 자국내 생산 없으며 100% 수입 의존
-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위성방송수신기의 주요 수입 상위 5개국 및 비중>

순위	국가	수입금액(백만달러)			점유율(%)			증감(%)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1
1	독일	38.6	20.1	23.1	59.7	37.1	47.7	14.9
2	터키	13.0	13.4	11.5	20.2	24.7	23.7	-14.3
3	중국	0.8	2.6	2.4	1.2	4.8	5.0	-5.8
4	파나마	0	3.6	2.3	0	6.6	4.7	-36.4
5	스위스	0.3	0.4	1.8	0.4	0.7	3.7	380.6
12	한국	0.3	0.3	0.3	0.4	0.5	0.7	21.1
-	합계	64.7	54.3	48.5	100	100	100	-10.6

자료원 :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청

○ 선정사유

- 정부의 의료시설 현대화 및 투자 확대
- 소득증가로 의료수요 확대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3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전문 전시회 참가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 Technologies Exhibition(매년 11월)
 - * 웹사이트 <http://www.bakutel.az/2012/?l=en> 참고
 - Azerbaij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매년 9월)
 - * 웹사이트 <http://www.bihe.az/2012/?l=en> 참고
- 잡지 또는 옥외광고
 - 잡지 및 옥외광고는 현지에서 매우 효과적인 광고 수단임
 - 수도인 바쿠에서 옥외 billboards 광고료는 위치에 따라 다르나 1개월 기준으로 약 600~1,000 달러 수준임
- KOTRA 해외시장조사 및 무역 사절단 참가
 - 바이어 발굴 후 카달로그 등 관련 자료 송부
 - 이후, 성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 대면상담(비즈니스 출장) 가능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소득수준이 낮아 가격을 중시하나 안전 관련 부품은 품질도 중시되므로 이들 부품을 집중 공략
- 인구 900만의 소국으로 대량 수입은 곤란하므로 다품종을 소량생산 또는 공급하는 것이 좋음
- 복잡한 제도(통관, 과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경쟁기업들이 선점한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현지 로컬 의료기기 유통상과 협조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대량 소모품은 생산공장 투자진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인접 중동국가와는 달리 소득수준이 낮아 저가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러시아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판매 가격대 형성이 필요
- 한국산 기기는 중국산, 러시아산에 비해 품질은 훨씬 우수하나 유럽산, 미국산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므로 한국산 제품은 아제르바이잔 시장 진출 가능성이 충분

□ 진출시 유의사항

- 한국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바이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류. 한국 제품은 운송에 2~3개월 소요되는데, 경쟁국인 러시아산은 육로로 10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한국제품을 취급하는 바이어는 사전에 세밀한 계획(판매량을 예측하여 한국기업에 통보 등)을 하여야 하고 상당한 양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함
- 운송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비용이 큰 것도 애로사항임. 바이어들은 先金비율을 줄여주는 등 한국기업이 신용면에서 협조하여 주면 한국산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
- 자동차 부품관련 관세율 및 관세장벽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수입관세율 5%, VAT 18%
 - 자동차 부품 수출 관련한 특별한 비관세 장벽은 없음
- 자동차 부품관련 관세율 및 관세장벽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장비 가격에 따라 0~5%부과, VAT 18%
 - 의료기기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비관세 장벽은 없음

VI. 우즈베키스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1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11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45,314백만달러로 2010년에 이어 8%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국내총생산중 분야별로는 서비스분야는 전년 대비 11.2%, 산업생산은 6.3% 증가하였으며, 농업생산은 6.6%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즈베크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출증가와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우즈베키스탄 GDP 규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GDP(백만US\$)	32,792	38,956	45,314	50,012*	55,477*
1인당 PPP(US\$)	2,820	3,043	3,317	3,578*	3,853*

자료: 우즈베크 통계청(*는 예상 수치)

- 2012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유럽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인프라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각종 제조분야 및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 우즈베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 및 면화의 안정적인 국제가격 형성과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에서의 자동차 수요 확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동향

- 2012년 1분기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은 31.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함
- CIS국가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한 14.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비 CIS 국가로부터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6.2% 하락한 17.2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국가별 수출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출	11,771.3	2.4	13,044.5	10.8	15,027.2	15.4	3,133.4	-7.5
CIS	3,921.3	-0.1	5,898.7	50.4	6,720.1	19.0	1,414.6	34.8
비 CIS	7,850.0	3.7	7,145.8	-9.8	8,307.1	12.6	1,718.8	-46.2

자료: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 2012년 1분기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수입은 27.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였는데 이 중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0.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비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24.1% 증가한 17.0억달러를 기록했음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국가별 수입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출	9,438.3	-2.7	8,797.9	-7.2	10,509.9	14.5	2,774.0	15.3
CIS	4,084.9	-13.7	3,525.8	-15.8	4,390.0	24.5	1,075.2	3.6
비 CIS	5,353.4	7.7	5,272.1	-1.5	6,119.9	16	1,698.8	24.1

자료: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 2012년 1분기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에너지 원료, 서비스, 원면 등으로 나타남.

<우즈베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US\$,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1-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에너지 원료	3,234.7	78.0	2,780.0	-25.2	1,052.8	123,0
원면	1,478.6	31.5	1,352.4	-5.0	397.9	-7,5
식품류	1,260.6	64.9	1,983.5	67.7	40.8	-75,1
철/비철금속	894.1	-13.5	1,112.0	34.2	235.0	-14,0
기계/설비류	723.2	-22.6	1,006.8	62.6	175.5	-2,1
화학/플라스틱	660.0	7.9	841.5	38.7	153.4	18,3
서비스	1,183.6	23.0	1,773.2	30.3	507.7	69,9
기타	3609.7	106.9	4,177.5	32.9	570.3	-57,9
총수출	13,044.5	10.8	150,272	15.4	3,133.4	-7,5

자료: 우즈벡 통계위원회

- 2012년 1분기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설비류, 식품류, 화학고무제품, 금속 등으로 나타남.

<우즈베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US\$,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1-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설비류	3,876.2	-27.3	4,340.5	5.7	1167.8	18,9
화학/고무제품	1,257.3	20.0	1,397.8	14.9	388.3	23,5
식품류	963.2	13.3	1,303.2	48.8	402.2	36,7
철/비철금속	740.1	24.4	851.3	22.5	202.5	26,8
에너지 연료	525.1	58.9	851.3	362.0	188.7	-35,6
서비스	417.3	0.4	557.0	15.2	130.4	33,0
기타	1018.7	17.3	1,208.6	18.2	294.1	12,0
총수입	8,797.9	-7.2	10,509.9	14.5	2774.0	15,3

자료: 우즈벡 통계위원회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

- 2012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우즈벡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8.7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원동기, 승용차를 들 수 있으며, 총 수출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자동차 관련 제품을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합성수지(2천만달러), 편직물(1천만달러), 건설 중장비(7백만달러) 등임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	품목명	2011년		2012년(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0	자동차부품	749,614	3.6	425,464	16.6
2	7111	원동기	203,964	27.8	59,322	5.6
3	7411	승용차	116,059	20.9	45,109	85.1
4	2140	합성수지	77,580	-15.1	19,938	-21.3
5	4360	편직물	47,863	-1.4	11,994	-19.3
6	5290	기타가구	34,970	65.4	8,947	-7.2
7	3203	타이어	19,702	70.0	8,515	104.6
8	7251	건설중장비	18,769	50.8	7,184	26.5
-	-	총 수출	1,718,758	19.5	870,921	16.2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우즈벡 주요 수출품인 원부자재의 안정적 국제가격 유지했는데 EIU에 따르면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상승했던 금의 국제가격이 2012년에는 약 14% 상승하는데 그치고 전년대비 평균 47% 상승했던 원면 가격은 2012년에 다시 2010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가스가 중국에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큰 폭의 수출 감소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문

- 우즈벡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지지하기 위해 솜 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의 국내유입으로 솜 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우즈베키스탄 환율 동향(단위: Som/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환율	1,511	1,640	1,795	1,960*	2,056*

자료: 우즈벡 통계청(*는 예상 수치)

2 3대 수출유망품목 선정요인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4~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윤활유 (271019)	N/A	N/A	N/A	N/A	N/A	N/A	2,019	47.2	3,574	77.0	1,610	14.1
2	자동차 배터리 (850710)	N/A	N/A	N/A	N/A	N/A	N/A	1,768	182.7	2,370	34.1	1,179	37.0
6	의료기기 (9018)	N/A	N/A	N/A	N/A	N/A	N/A	1,823	81.3	1,470	-19.4	936	26.5

(자료원 : KOTIS)

주)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은 수출입 통계 관련 군별(한국 MTS 2단위 정도) 통계만 발표
품목의 군별 수출입도 국가별 통계는 미발표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윤활유(HS : 271019)
---	-----	------------------

○ 시장동향

- 윤활유는 산업용오일과 자동차 엔진오일 시장으로 분류됨
-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사유로 정확한 수요는 알 수 없으나 관련 바이어 인터뷰 결과 우즈베키스탄 윤활유(산업용 오일 및 자동차용 엔진오일) 수요는 연간 약 5천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10% 이상의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산업용 오일은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엔진오일은 소득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 급속증가에 따른 엔진오일 시장 급성장
- 한국산 윤활유의 경우 점차적으로 인지도 상승중

○ 경쟁 및 수입동향

- 우즈베키스탄 윤활유의 경우 생산이 전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내 윤활유 시장은 독일, 한국, 러시아 3개국 제품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산(Manol, Posser, Castrol)이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산(Rukoil)이 약 10% 한국산(Kixx)가 약 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정사유

- 우즈베키스탄 윤활유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음
- 타슈켄트무역관은 Kixx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금도유니버설(LG칼텍스 CIS 수출대행기업)을 지사화업체로 지원중

2	품목명	자동차 배터리(HS : 850710)
---	-----	----------------------

○ 시장동향

-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통계 미발표로 알 수 없으나 수요는 연평균 15%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011년 우즈베키스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90만대로 전년 175만대 대비 15만대 증가, 비례적으로 배터리 수요도 증가 추정

○ 경쟁 및 수입동향

- 자동차배터리의 경우 한국산 제품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산, 우즈베키스탄산이 인기를 끌고 있음
- 고가제품으로 한국산, 중가제품으로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우즈베키스탄산으로 분류(한국산을 100%으로 기준, 중국산 80, 우즈베키스탄산 50)
- Delco 등 한국산의 경우 브랜드인지도가 높고 배터리가 오래가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반면, 중국산 및 우즈베키스탄산의 경우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소형차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음

○ 선정사유

- 한국산배터리에 대한 높은 인지도로 인해 수입수요는 계속 증가 예상
- 타슈켄트무역관이 2012년부터 지사화업체로 배터리 수출기업(주원통상 브랜드 KOBA)을 지원하고 있어 선정

3	품목명	의료기기(HS : 9018)
---	-----	-----------------

○ 시장동향

- 현재 우즈베크내 의료기기 상당부분 구소련시대에 도입, 낙후 및 효율 저하
- 우즈베크내 병원 및 예방 등 의료기관 약 8,200개로 X선장비, 초음파 진단장비, 환자감시 장비 등 기초의료 기기 대체 수요 다대
- 우즈베크 정부는 의료 현대화를 위한 3개년(2012-2014) 조치 발표 (2012.2), 신규 및 대체 수요 급증할 전망이다 102개 신규 클리닉 개소 및 기기 공급, 기존 대형병원 중심 노후화 기기 대체
- 우즈베크내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는 X선 장비, 초음파 진단장비, 환자감시용기기 등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2년 이후 연간 2.5억달러에 달하는 우즈베크 의료기기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 돌입
- 우즈베크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한국산 기기는 경쟁국 대비 점유율 극히 미미

○ 선정사유

- 우즈베크내 의료기기 수요는 국가 우선 지원사업으로 지속적 수요 창출 가능
- 타슈켄트무역관은 한국 X선 장비 수출기업인 엠아이에스를 지사화사업으로 지원중

3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정기 개최되는 KOTRA 사업에 참가 가능
 - KOAA Show 전시 상담회(2012년 11월)
 - Global TransporTech(2013년 상반기 예정)
 - * 동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완성차 기업인 GM-Uz에서 매년 참가, OEM 납품업체 발굴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개최되는 상담회에 참가 또는 참관
 - 자동차 부품 : Auto&Part Uzbekistan (2013년 6월)
 - 의료기기 : Tashkent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2013년 4월)
 - 의료기기 : UzMedExpo(2013년 10월)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적극적 시장진출 노력 요망
 -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 초기 단계의 시장으로 인구 약 3천만명을 보유한 잠재적 수요가 다대한 매력적인 시장임
 - 하지만 구소련 시절 폐쇄적인 활동을 경험한 우즈베크인들의 경우 아직까지 개방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관계로 지속적인 접촉 및 방문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성공적인 시장확대가 가능함
- 신용거래로 진출 확대
 - 정부의 외환통제로 바이어들의 대금결제에 애로 사항이 자주 발생함 (신용장 및 TT의 경우 지불을 위한 외환확보에 1년 이상 소요)
 - 신용거래시 선진국 주요 은행의 보증신용장 발급은 필수임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신용거래 수용

-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외환 불법 유출 등)를 하는 바이어들도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희망하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외국 유명 은행의 보증하에 신용거래(외상거래) 수용시 더욱 많은 물량의 제품 수입 가능

○ 가격경쟁력 확보

- 품질이 크게 개선된 중국산 제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품질을 중시하는 바이어들에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중국제품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커서 현지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현지 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고려

- 산업화 초기단계로 제조업 육성 필요하며 물류비 등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에는 현지 생산이 유리한 상황임
- 한국의 설비 및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현지 진출을 통한 생산시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유리함

□ 진출시 유의사항

○ 정부의 극심한 외환통제

- 우즈베크 정부가 소비시장 보호를 이유로 수입대금 지불을 위한 외환(미화)에 대해 건건 심사, 수입대금 지불을 위한 환전시까지 최소 6개월 최대 2년 가까이 소요됨

- 우즈벡 정부는 소비시장 보호를 위해 주로 소비재에 대해 외환통제를 하고 있다 하나, 실제적으로는 원부자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환 통제중임
- 이러한 외환통제로 인해 현지 바이어들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로 대금지불 수단이 통상화 되어 있으며 수출기업들은 이를 꺼리는 관계로 정상적 거래에 애로가 있음

○ 비효율적인 물류조건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한국에서 제품 운송시, 중국-카자흐스탄을 통한 내륙운송으로 인해 높은 물류비 발생함하며 중국 및 카자흐스탄 운송량 증가시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실제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중국 및 카자흐스탄 물류 정체로 인해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통상 40일 소요되던 운송기간이 6개월까지 소요된 바 있음

작성자

◆ 신흥시장팀	오기찬 사원
◆ 모스크바 무역관	오명훈 과장
◆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우상문 과장
◆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이금하 관장
◆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김성수 관장
◆ 키예프 무역관	유희숙 관장
◆ 알마티 무역관	김정훈 과장
◆ 바쿠 무역관	홍 희 관장
◆ 타슈켄트 무역관	이종섭 관장

Global Market Report 12-057

CIS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